

Annual Report  
2017  
KBS시청자상담백서



#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17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9
5. 정보공개 안내	108
※시청자 권익보호란?	112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15
7. 제작진 답변	117
8.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29
- KBS 민원사무처리규정	134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39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41

#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24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23 명이 주간 2 교대, 야간 2 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1:1 채팅 상담),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mailto: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인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 2

# 2017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17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409,275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301,353건 73.6%)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

##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간	상담건수	증감	증감률
2017년	409,275	▼ 67,218	-14.11%
2016년	476,493	▲ 23,426	5.17%
2015년	453,067	▼ 13,086	-2.81%
2014년	466,153	▼ 28,976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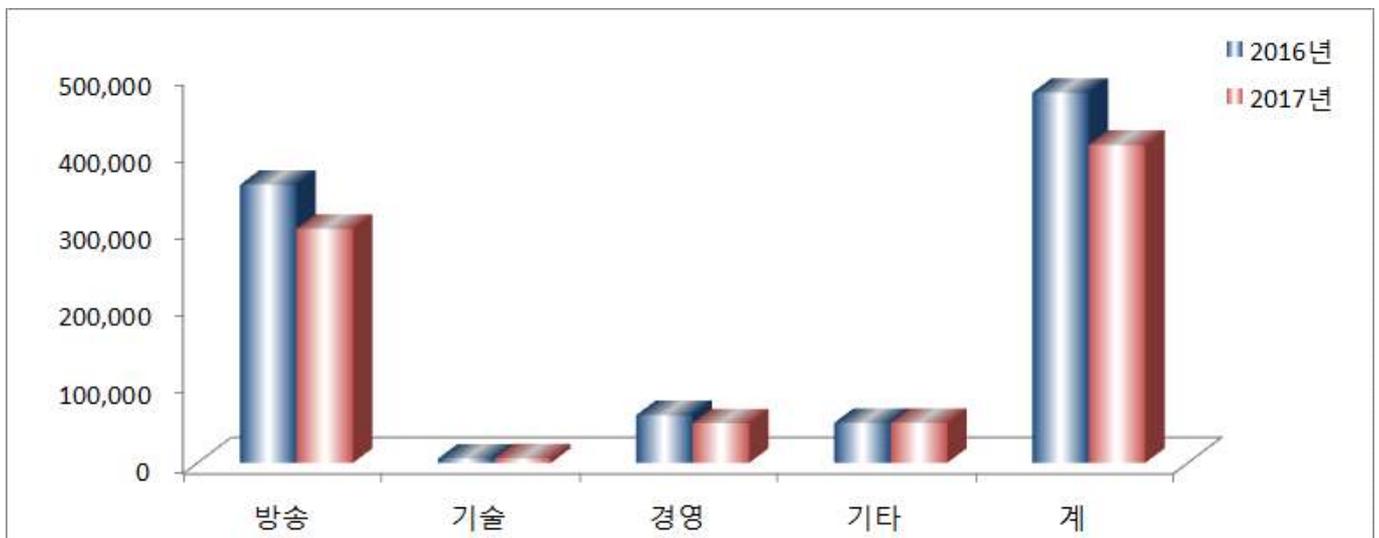


## 2 시청자의견 집계

### ■ 2017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30,888	433	4,762	4,484	40,567	
2	26,177	459	4,477	3,911	35,024	
3	27,639	520	4,580	5,140	37,879	
4	26,072	428	4,270	4,305	35,075	
5	23,855	665	4,749	4,143	33,412	
6	23,653	714	4,060	3,992	32,419	
7	24,068	537	4,152	3,883	32,640	
8	26,957	443	4,691	4,401	36,492	
9	23,973	365	3,952	4,144	32,434	
10	20,365	317	3,361	4,180	28,223	
11	22,214	372	3,742	4,513	30,841	
12	25,492	360	4,130	4,287	34,269	
계	건	301,353	5,613	50,926	51,383	409,275
	비율	73.6%	1.4%	12.4%	1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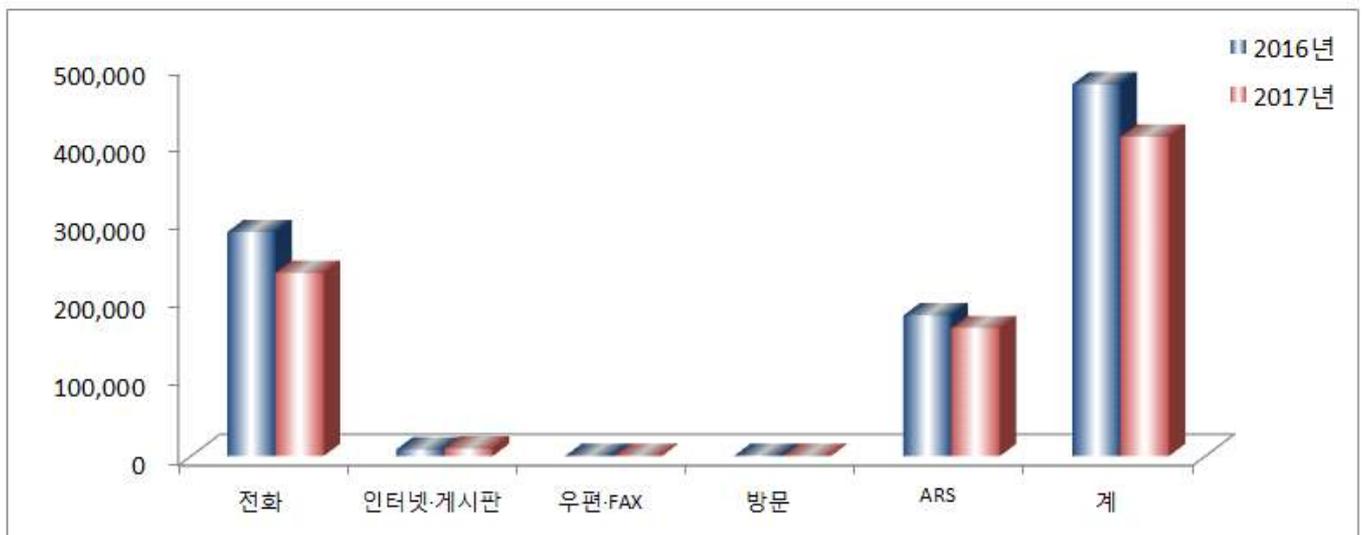
[2016년, 2017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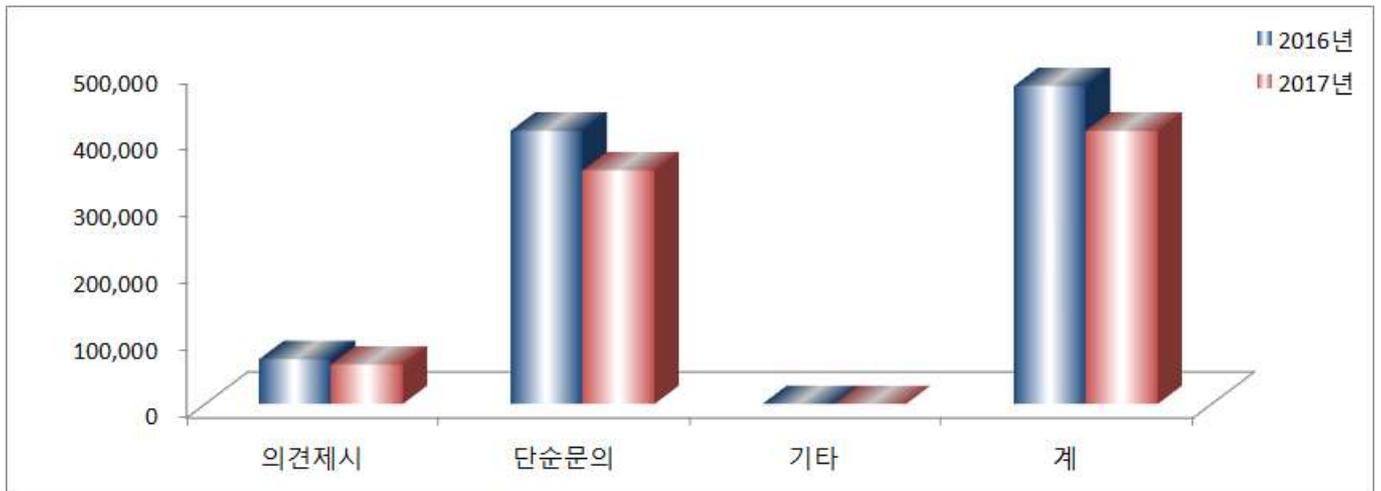
■ 2017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24,317	783	19	47	15,401	40,567	
2	20,371	707	5	35	13,906	35,024	
3	21,625	1,337	33	45	14,839	37,879	
4	19,902	921	22	38	14,192	35,075	
5	20,114	711	14	24	12,549	33,412	
6	18,411	701	13	30	13,264	32,419	
7	18,281	672	12	36	13,639	32,640	
8	20,185	954	13	31	15,309	36,492	
9	18,844	654	8	23	12,905	32,434	
10	16,732	684	8	22	10,777	28,223	
11	17,599	586	8	40	12,608	30,841	
12	18,514	1,146	12	24	14,573	34,269	
계	건	234,895	9,856	167	395	163,962	409,275
	비율	57.4%	2.4%	0.0%	0.1%	4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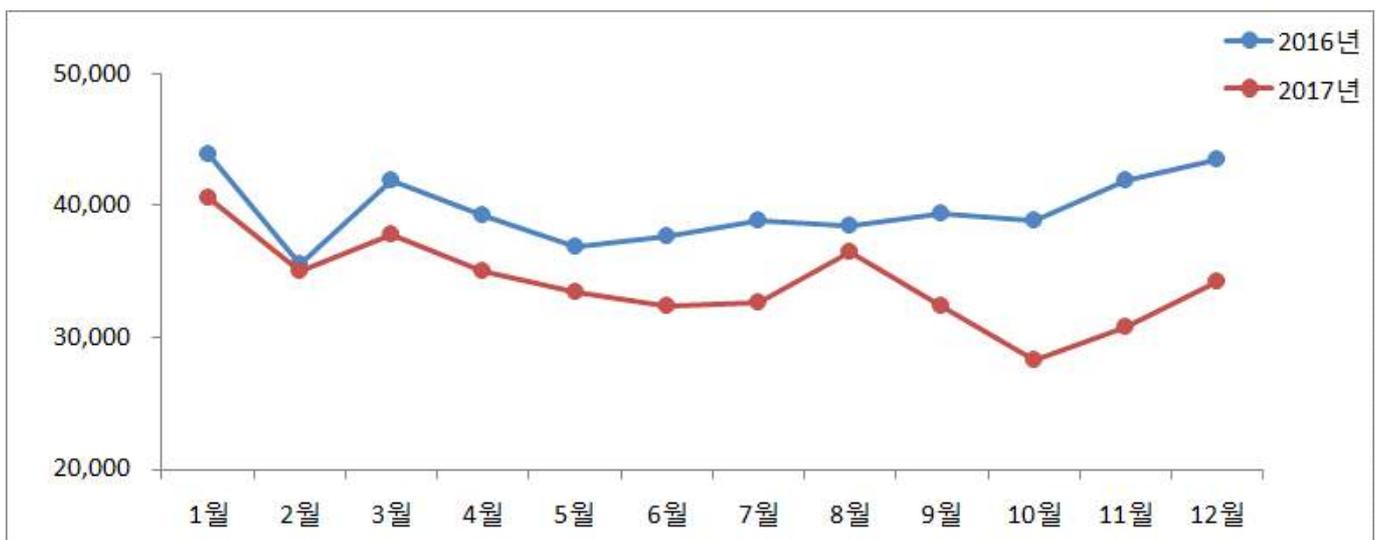
[2016년, 2017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6년, 2017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6년, 2017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17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104	171	2	109	69	11	9	-	-	475	
2	29	29	23	143	180	19	54	-	2	479	
3	143	51	-	158	24	20	15	-	2	413	
4	50	434	11	84	23	31	9	-	23	665	
5	74	78	1	74	97	18	13	-	3	358	
6	76	20	35	79	22	50	8	-	2	292	
7	34	60	-	145	28	17	20	-	1	305	
8	135	18	5	62	22	18	20	-	13	293	
9	308	12	-	77	19	19	21	-	-	456	
10	345	30	74	49	14	8	8	-	-	528	
11	474	1	-	33	12	12	12	-	-	544	
12	376	2	-	55	4	13	9	-	-	459	
계	건수	2,148	906	151	1,068	514	236	198	-	46	5,267
	비율	40.8%	17.2%	2.9%	20.3%	9.8%	4.5%	3.8%	0.0%	0.9%	100%

###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8명을 차례로 초청하여 심층 대담 형식의 토론을 하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연한다고 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연이 취소되어 아쉬웠다. 향후 다시 섭외되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52
2월	개그 콘서트	'대통령'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제로 현 시국을 풍자하는 코너이다. 그런데 이날 담화 내용을 발표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대화를 하며 유민상이 "누가 본다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그냥 동원하면 됩니다. 목욕재개하고 다 같이 신청하면 달풍선 5개씩 주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부 집회를 지나치게 풍자한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 주기 바란다.	120
3월	특집 생방송 일요토론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나라도 3만 원 주면 나가겠다는 분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발언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67
4월	2017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제 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 사상 처음 원고 없는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되어 신선하고 긴장감을 높여 주었다. 또한 토론 주제가 다양해 유익했다. 그런데 토론회가 후보들의 정책검증을 위한 방송인데,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고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리고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285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가정의달 특별기획 이미자 빅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기획 이미자 빅쇼가 방송되었다. 가요무대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90분 가까운 방영시간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보기 좋았다. 또 '님은 먼 곳에', '비 내리는 삼천포', '허공' 등 주옥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미자는 1964년 '동백아가씨'를 발표해 35주 동안 가요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로 오랜만에 방송에서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이른 시일 내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54
6월	2017 프로야구	2017 KBO리그 삼성 대 두산의 경기가 중계방송되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경기 진행 도중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정규방송도 중요하지만 중계방송 편성 시 여유롭게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5
7월	우리말 겨루기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본인처럼 방송시간에 맞춰 TV를 켜는 사람은 결방에 대한 안내 자막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정규 프로그램 결방은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란다.	72
8월	노래가 좋아	일반인들의 따뜻한 사연과 숨겨진 실력을 볼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74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TV쇼 진품명품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 도자기, 그림, 민속품 등 의뢰품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다양한 의미가 숨겨진 근대 유물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웠다.	74
10월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NC 대 롯데의 경기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KBS 2TV에서 중계하다가 7회 초에 KBS 1TV로 변경되었는데 다시 10회 말에 KBS N 채널로 중계 변경되어 경기를 보기 불편했다.	46
11월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독종 검사 마이덤(정려원 분)과 초임 검사 여진옥(윤현민 분)가 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프로 야구 중계로 인해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늦게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송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란다.	36
12월	해피 선데이 스페셜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전국을 여행하며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1박 2일'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본 방송이 아닌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4

## 4 월별 Top 10 의견

###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52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8명을 차례로 초청하여 심층 대담 형식의 토론을 하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연한다고 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연이 취소되어 아쉬웠다. 향후 다시 섭외되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TV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44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벌써 대선 주자와 관련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TV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신년 기자회견]	3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신년인사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 중계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향후에는 끝까지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37	흘러간 옛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다른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주 시청자인 고령층은 이 방송만을 기다렸다. 차후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일요토론]	32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만연한 특권과 특혜,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주필 정규재가 다른 패널이 말하는 중 끼어들거나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등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차후 출연자 섭외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17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출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치탄압의 문제는 아닌지 궁금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출연을 잠정연기해 줄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이지만 출연자 섭외 시 오해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17	타 방송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무례한 언사와 진행으로 개그맨 이휘재가 사과를 전했지만 악플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도 타 방송을 시청하며 이휘재의 무례한 진행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는 등 원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1월 중으로 다시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의 복귀가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복귀 시점을 다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5]	10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풍자화가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전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뉴스를 보도하는 자료화면 그림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와 보기 불편했다.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니 향후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보도해 주기 바란다.
2TV [2016 KBS 연기대상]	7	홈페이지에서 2016년 네티즌상 남녀 수상에 대해 사전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2016 KBS 연기대상」시상식에서는 남자 네티즌상만 수상을 해 의아했다. 여자 부분의 투표현황이나 1위를 누가 했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소명해 주기 바란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2TV</p> <p>[개그 콘서트]</p>	<p>120</p>	<p>'대통령'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제로 현 시국을 풍자하는 코너이다. 그런데 이날 담화 내용을 발표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대화를 하며 유민상이 "누가 본다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그냥 동원하면 됩니다. 목욕재개하고 다 같이 신청하면 달풍선 5개씩 주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부 집회를 지나치게 풍자한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1TV</p> <p>[생방송 일요토론]</p>	<p>65</p>	<p>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는 탄핵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토론하고, 심판 이후 결과에 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날 출연자들이 중립적인 아닌 편파적인 입장의 발언을 해 듣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중립적인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p>
<p>2FM</p> <p>[레이나의 굿모닝팝스]</p>	<p>25</p>	<p>팝송과 영어회화를 접목시켜 영어공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어 10년 넘게 교재도 구매하여 듣고 있는 애청자다. 이근철 진행자도 잘했지만 존 발렌타인의 원어민 발음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좋았다. 그런데 최근 개편으로 인해 진행자가 교체되어 진행 방식이나 교재 활용도가 적어 아쉽다. 이전 진행자들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 개편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p>
<p>2TV</p> <p>[개그 콘서트]</p>	<p>25</p>	<p>이날 '1대 1' 코너에서 래퍼 킬로그램이 유치원 원장의 비리와 국정교과서를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9개 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서 운영비를 싹쓸이 처럼 유용해 문제가 된 것을 꼬집는 랩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유치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모든 유치원에 해당되는 문제처럼 개그의 소재로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차후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p>
<p>1TV</p> <p>[2016-2017 V리그]</p>	<p>17</p>	<p>2016-2017 V리그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방송을 보던 중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가 중단되며 캐스터가 'KBS N 스포츠' 채널에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해당 채널에서는 여자 농구 중계가 진행되어 당황스러웠다. 착오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추적60분]	10	불법으로 매주 벌어지는 투견 현장을 경찰과 공조하여 급습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투견은 동물 학대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된 투견 개최자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경약을 금지 못했다. 투견장에서 긴급 구조한 투견 광명이가 마지막에 기운을 차리지 못해 안타까웠다. 불법 개최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와 투견 광명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2TV [2TV 생생정보]	8	이날 삼바총각의 고향생각 코너에서는 충남 당진군 대호지마을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왼쪽 상단에 '충북 당진군 대호지마을'이라 표기되었는데, '충청남도 당진시'가 정확한 행정구역이다.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2R [허수경의 해피타임 4시]	7	가요와 올드팝 등 음악과 생생한 사연으로 편안한 오후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청취한다. 그런데 방송 중에 진행자인 허수경이 하차한다고 말해 애청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고생한 허수경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TV [KBS 뉴스속보]	6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6시 내고향」을 시청하던 도중 뉴스속보에 '말레이시아 언론 김정은 피살 용의자 2명 체포'로 자막 표기가 잘못 나왔다. 뉴스 전달 시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TV [공사창립 특선 2부작 백두산]	6	민족의 성산 백두산 1년간을 기록해 한민족의 아픈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백두산에 담긴 갖가지 이야기와 함께 조명한 프로그램이다. 백두산의 사계절과 웅장함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사진작가가 백두산을 1000번 이상 오르며 20년간 촬영을 했더니 본인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변화무쌍한 백두산을 영상미 있게 담아낸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3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특집 생방송 일요토론]	67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나라도 3만원 주면 나가겠다는 분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발언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7	일일드라마로 매일매일 빠짐 없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 뉴스특보도 중요하지만,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35	요일별 특화된 주제로 방송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세월호 인양작업 뉴스특보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세월호 인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30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과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며 진솔하고 유쾌한 삶의 이야기를 소통하는 신개념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선택 2017 KBS 대선후보 경선토론」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VJ특공대]	28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중국 하이난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송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시기에 적절한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생방송 일요토론]	14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탄핵소추위원 및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여야 중진의원들을 초청해 열린 토론의 장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출연자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칭 없이 '박근혜'라고 계속 칭해 듣기 불편했다. 탄핵이 진행중이더라도 아직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 만큼 출연자 발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부산)]	8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주거 안정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녹지를 파괴해 업자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주민들 입장에서 뉴스테이 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자세히 보도해 주어 좋았다. 항상 공정한 보도에 힘써 주는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TV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5	첫사랑에 간혀 사는 남자와 첫사랑을 지운 여자가 8년 만에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그런데 극중 백민희(왕빛나 분)가 아이를 빼돌리거나 남편의 사고를 조장하는 등 악행이 점점 심해져 보기 불편했다.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속 시원한 내용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1TV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 기행 그곳]	5	정규편성 첫 번째 여행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한 상하이에서 방송되었다. 아픈 역사의 기억을 공유한 상하이를 방문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고달픔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광복에 대한 꿈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보기 불편했다.
1TV [KBS 뉴스 9]	5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청자평가지수 조사 결과 KBS 1TV가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다른 언론에서는 JTBC가 지상파와 종편을 합쳐 1위를 차지했고, KBS는 지상파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나와 혼란스러웠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2017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285	제 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 사상 처음 원고 없는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되어 신선하고 긴장감을 높여 주었다. 또한 토론 주제가 다양해 유익했다. 그런데 토론회가 후보들의 정책검증을 위한 방송인데,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고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리고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1TV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6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되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해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보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네거티브 전략만 펼쳐 아쉬웠다.
1TV [KBS 뉴스 9]	58	이번 대선에 역대 최다인 후보 15명이 출마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런데 5개 주요 정당 외 다른 후보들에 대한 내용은 쉽게 접하기 힘든 것 같다. 시청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후보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21	8년 전 오은수(이영은 분)가 김빛나(박하나 분)를 때리는 걸 목격했다며 거짓증언을 했던 정아(함연지 분)의 등장으로 오은수(이영은 분)와 김빛나(박하나 분) 사이에 또다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내용이 그려졌다. 그런데 김빛나(박하나 분)가 계속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기타 [KBS 뉴스]	20	현역 군인 30명이 부대 안팎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가져 장준규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 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KBS 뉴스 SNS에서 확인했는데, KBS 관계자가 '포르노 영화 찍냐'라는 답글을 달아 당황스러웠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1 대 100]	18	1명의 도전자와 일반인 100명이 최후의 생존자 1인을 가릴 때까지 퀴즈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보고 있다. 유익한 내용을 퀴즈로 풀며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어 좋다. 그런데 3월 21일 방송이후 당분간 녹화예정이 없다는 소식을 접해 아쉬웠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TV [2017 프로야구]	10	2017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 경기를 중계방송 해주어 반가웠다. 9회 말 7 대 5 로지고 있던 삼성이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까지 가는 흥미진진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중단되었다. 이후 경기는 KBSN 스포츠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중계를 해주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계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9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교실험 및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른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되지 않아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TV [정신 이슈]	8	'사랑과 불륜사이 당신은 생각은?'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의 관계를 두고 사랑과 불륜 설전이 벌어졌다. 서로 다른 입장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를 예로 들어 방송이 진행되는 건 두 사람의 불륜을 정당화 시키고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주제 선정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1TV [KBS 대선후보 토론회]	6	KBS가 대선후보 토론 일정을 19일로 확정짓고 각 당에 후보 출연을 요청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제외되었다고 들었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의거해 토론 일정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는데, 소수 정당이 토론에서 배제되어 아쉽다. 소수 정당 후보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5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가정의달 특별기획 이미자 빅쇼]	54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기획 이미지 빅쇼가 방송되었다. 가요무대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90분 가까운 방영시간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보기 좋았다. 또 '님은 먼 곳에', '비 내리는 삼천포', '허공' 등 주옥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미자는 1964년 '동백아가씨'를 발표해 35주 동안 가요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로 오랜만에 방송에서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이른 시일 내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6	매일매일 빠짐 없이 챙겨보는 일일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방 없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TV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2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방송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각 당의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및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드배치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분분해 보기 불편했다.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TV [생방송 일요토론]	15	주요 정당의 선대위 핵심 책임자들과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시대 정신은 과연 어디에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유례없이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맞아 후보들 공약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보기 불편했다.
1TV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1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되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는 복지과 교육정책, 국민 통합 등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해 진행되었다. 마지막 TV 토론회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비전 제시보다는 후보자 간에 인신공격 등 신경전이 가열되어 아쉬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2TV</p> <p>[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p>	11	<p>홍지원(배종옥 분)이 윤설(오지은 분)을 손여리라고 확신하며 화를 내고 손여리(오지은 분)는 끝까지 침착하게 자신이 윤설(오지은 분)이라고 주장하며 전개되는 내용이 흥미진진했는데 이날 U20 축구중계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p> <p>[가정의달 특별기획 이미자 빅쇼 스페셜]</p>	11	<p>가정의달 특별기획으로 이미자 빅쇼 스페셜이 방송되었다. 지난 방송도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다시 방송해 주어 좋았다. 올해로 77세를 맞이한 이미자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들과 시청자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감명 깊은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p>
<p>2TV</p> <p>[추적 60분]</p>	10	<p>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 그 첫 번째, 일부 '재벌'의 폐해를 정면으로 겨냥해 2주 연속으로 '재벌과 비자금'이 방송된다고 해 기다렸다. 그런데 해당 시간에 편성변경안내를 보고 편성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시청자를 위해 되도록 갑작스런 편성 변경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p>
<p>1TV</p> <p>[콘서트 7080]</p>	7	<p>당시의 인기 곡, 명곡을 오리지널 가수를 통해 들어보고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2주 동안 방송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 상황에 따라 편성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되도록 동일한 시간에 방송해 주기 바란다.</p>
<p>1TV</p> <p>[생방송 일요토론]</p>	6	<p>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날은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의 리더십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과연 어떤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가장 적임자인지 가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출연자 중 일부가 정책 토론보다는 다른 당을 상대로 네거티브 전략만 펼쳐 보기 불편했다.</p>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2TV [2017 프로야구]</p>	<p>25</p>	<p>2017 KBO리그 삼성 대 두산의 경기가 중계방송되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경기 진행 도중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정규방송도 중요하지만 중계방송 편성 시 여유롭게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p>
<p>2TV [주말연속극 황금빛 내인생]</p>	<p>18</p>	<p>주말연속극「아버지가 이상해」후속으로「황금빛 내인생」이 방송되는데, 주인공으로 배우 박시후가 출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박시후는 2013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주인공으로 섭외되었다니 놀라웠다. 주말에 온 가족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p>
<p>1TV [인간극장 스페셜]</p>	<p>15</p>	<p>지난 2016년에 방송되었던 '꽃자왈, 아버지의 숲을 걷다'가 재방송되었다. 매일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어 좋았는데, 정규 방송시간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본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p>
<p>2TV [금토드라마 최고의 한방]</p>	<p>15</p>	<p>배우 윤손하의 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두 번에 걸쳐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이다. 그런데 드라마에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출연자를 하차시켜 주기 바란다.</p>
<p>1TV [천상의 컬렉션]</p>	<p>11</p>	<p>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호스트들이 생생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6월 4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후 재방송만 되어 아쉽다. 방송시간이 변경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여유만만]	8	'장례도 결혼처럼 미리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누구나 알아야할 장례 절차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이필도가 화장 장려금을 화장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모든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나왔다. 정확한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속보]	7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를 임명하는 내용에 대해서「TV쇼 진품명품」방송 중 속보 자막으로 알려 주었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길 바란다.
2TV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6	지극한 모성애 때문에 충돌하는 두 여자를 통해 여자보다 강한 두 엄마의 여정을 그린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결방이 잦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날도 축구 중계로 결방되었는데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7일의 왕비 스페셜]	6	그동안 방송된 1회부터 4회까지의 주요 내용이 재방송 되었다. 이 때문에 평소 재미있게 시청하는「살림하는 남자들」방송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정규 방송을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5	목요특강에서는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작은 병이 사람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런데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을 해 듣기 불편했다. 방송에서는 되도록 편향된 의견을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우리말 겨루기]	72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본인처럼 방송시간에 맞춰 TV를 켜는 사람은 결방에 대한 안내 자막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정규 프로그램 결방은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KBS 아침 뉴스타임]	40	'강승화의 연예수첩' 코너에서 아이돌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되었다. 자료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특정 아이돌 그룹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화면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
1R [와이파이 초한지]	10	동양적 재미와 고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초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이날 다른 프로그램인「방재시스템, 예방이 우선이다」가 방송되어「와이파이 초한지」가 폐지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1TV [아침마당]	7	이 날 '내 말 좀 들어봐' 코너에서 아내의 옷차림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화가 나는 남편과 자신의 패션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아내가 출연했다. 그런데 부부가 고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가 숨골이 보이는 의상이 보기 불편했다. 사전에 출연자 의상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
2TV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6	마이네리그 청춘들의 성장로맨스로 고동만(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원 분)가 결혼을 약속하고, 김주만(안재홍 분)과 백설희(송하윤 분)가 다시 알콩달콩한 사랑을 시작하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매회 현실적인 에피소드로 웃고 울고 응원하며 시청했는데 증명되어 아쉽다. 볼수록 재미있고 유쾌한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곧 시즌 2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5	매주 수요일에는 시청자들의 이야기 경연 대회 코너로 '내 말 좀 들어 봐'가 방송된다. 출연자들의 생생한 사연을 듣다 보면 1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집중해서 시청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방송 내용 중에 재혼 가정의 다소 비상식적인 사연이 소개되는 등 공감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천상의 컬렉션]	4	별을 꿈꾸고 동경한 소년이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 설명해주었다. 뮤지컬 모차르트 중 '황금별'의 노래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해 인상 깊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별을 새긴 천문도로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과학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과 만원 지폐에 혼천의 뒤로 그려진 별자리가 천상열차분야지도라니 놀라웠다. 면면히 이어져 온 천문과학의 전통과 류방택과 관련한 탄생비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2TV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4	남들이 뭐라하든 자신이 원하는 나만의 길을 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최근 고동만(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원 분)의 한층 더 견고해진 로맨스가 그려져 극의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또 이날 이들이 살았던 서산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머물렀던 황복희(진희경 분)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몰입도 높은 극본으로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볼 수 있어 좋다.
1TV [KBS 뉴스 9]	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 각도로 전망해보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 커피 전문점 직원의 월급이 내년부터 한 달에 평균 157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며 "9급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라고 했다. 표면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자칫 최저임금 근로자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해 주기 바란다.
2TV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2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한 여자가 살리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신의 아이와, 살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악을 응징하고 복수하는 사필귀정의 드라마로 방송시간만을 기다리며 시청하고 있다. 최근 마야가 손봄임을 차차 알게 되며 서로 쫓고 쫓기는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홍지원(배종옥 분)의 악행이 하루 빨리 드러나 윤설(오지은 분), 손봄(김지안 분) 모녀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노래가 좋아]	74	일반인들의 따뜻한 사연과 숨겨진 실력을 볼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중계방송]	13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가 생중계되었다. 지난 3개월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토크 쇼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나 국내 현안인 북핵 문제나 살충제 계란 파문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중계 방송 예고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아쉬웠다.
기타 [KBS뉴스 트위터]	13	공영방송의 공식 트위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와 관련 내용으로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런데 해시태그가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단어들로 느껴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내용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8	매주 금요일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와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하는 가요 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2주 동안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6	정해진 주제로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 날은 '황혼이혼, 누가 더 손해?'라는 주제로 '황혼이혼'에 대한 출연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혼 경험이 없거나 미혼인 출연자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황혼이혼을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p>2TV</p> <p>[주말연속극 아버지가 이상해]</p>	6	<p>코믹하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라 빠짐없이 시청했다. 마지막 회에서 아버지 이윤석(김영철 분)과 어머니 나영실(김해숙 분)이 황혼 결혼식을 올리고, 이윤석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으로 해피엔딩을 맺었다. 가족 드라마답게 다양한 에피소드와 각각의 캐릭터가 지닌 매력을 잘 살려내어 보는 내내 재미있었다. 사회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어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너무 아쉽다.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일깨우며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좋은 드라마였다.</p>
<p>1TV</p> <p>[인간극장 스페셜]</p>	4	<p>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경북 영양의 두메산골의 김용섭 서정선 노부부 이야기가 앙코르로 방송되었다. 3번째 앙코르 방송인데 정규 방송시간에 편성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p>
<p>2TV</p> <p>[KBS 특선대작 전쟁과 평화]</p>	4	<p>톨스토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가 직면한 고민을 높은 예술성으로 묘사한 클래식 영화다. 전쟁 드라마의 교과서라 할 만큼 장르적 특성과 주제의 깊이를 잘 살려내어 감동적이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p>
<p>1TV</p> <p>[KBS 특선다큐]</p>	4	<p>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 외면하고 눈 감았던 광주의 진실을 알린 독일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취재 과정을 다룬 내용이 방송되었다.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어 매우 좋았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p>
<p>1TV</p> <p>[6시 내고향]</p>	4	<p>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생생한 이야기와 좋은 곳을 많이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 방송하는 '시골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 버스' 코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날 이 코너가 방송되지 않아 폐지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p>

| 9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TV쇼 진품명품]	74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 도자기, 그림, 민속품 등 의뢰품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다양한 의미가 숨겨진 근대 유물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웠다.
1TV [도전, 골든벨]	41	고등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최후의 1인이 골든벨을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웠다.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33	매주 일요일마다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한 스페셜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TV [도전, 골든벨]	31	고등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최후의 1인이 골든벨을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웠다.
1TV [우리말 겨루기]	16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며 올바른 표현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 특히 엄지인 아나운서가 매끄럽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더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엄지인 아나운서 대신 성세정 아나운서가 진행하여 아쉬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우리말 겨루기]	15	일반인 출연자들의 우리말 퀴즈 대결을 볼 수 있어서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한 스페셜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TV [KBS 뉴스]	13	뉴스를 꾸준히 시청하는데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결방될 경우에는 미리 자막으로 고지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TV [TV쇼 진품명품]	10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민속품과 근대 유물의 가치를 살펴보는 고미술 감정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특히 전문 감정위원의 해박한 설명이 더해져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해 주어 유익했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TV [아침마당]	8	이 날 '화요 초대석'에는 방송인 이경실과 아들 손보승 모자가 동반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경실이 오랜만에 출연해 방송에서 볼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본인의 근황보다 손보승이 뮤지컬 배우로 입문한 소식을 언급하며 아들의 뮤지컬 활동 위주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1TV [노래가 좋아]	8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출연하여 노래 실력을 뽐내는 방송으로 좋아한다. 특히 도경완, 장윤정 부부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평소와 달리 가수 장윤정이 단독 진행하여 아쉬웠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46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NC 대 롯데의 경기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KBS 2TV에서 중계하다가 7회 초에 KBS 1TV로 변경되었는데 다시 10회 말에 KBS N 채널로 중계 변경되어 경기를 보기 불편했다.
1TV [TV쇼 진품명품]	34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민속품과 근대 유물의 가치를 살펴보는 고미술 감정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매주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민속품 등 다양한 의뢰품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TV [TV쇼 진품명품]	32	의뢰품에 대한 문화재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1TV [TV쇼 진품명품]	31	의뢰품에 대한 문화재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TV [노래가 좋아]	27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방송시간에 맞춰 TV를 시청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많이 아쉬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생방송 일요토론]	26	적폐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올바른 적폐청산과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적폐청산 논란의 실체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날 출연자들이 중립적인 아닌 편향적인 입장의 발언을 해 듣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중립적인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TV [도전, 골든벨]	24	고등학교 학생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재기 발랄한 말솜씨와 장기자랑을 볼 수 있어 꾸준히 시청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결방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방송되길 원한다.
2TV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광주>]	21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기아 대 두산의 경기가 광주 구장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경기를 중계하면서 경기 분석과 해설이 기아 타이거즈 팀 위주로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다. 앞으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1TV [TV쇼 진품명품]	20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의뢰품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결방되어 아쉽다.
2TV [일일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	19	엄히고설킨 네 남녀가 펼치는 폭풍 같은 운명의 굴레와 더불어 따뜻한 가족애가 넘쳐나는 진정한 가족 드라마다.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반전 스토리로 보는 재미를 더하여 즐겨 시청하고 있다. 평소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중계방송으로 인해 드라마가 결방되어 많이 아쉬웠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36	독종 검사 마이듬(정려원 분)과 초임 검사 여진옥(윤현민 분)가 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프로 야구 중계로 인해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늦게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송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28	재미와 웃음을 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2주 연속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내에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7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들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재방송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일일연속극 미워도 사랑해]	20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결혼과 이혼,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가족 드라마이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진 뉴스 특보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추후에는 드라마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매주 스타가 아닌 일반인 위주로 새로운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으로 인해 고민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함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3주 연속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TV쇼 진품명품]	19	다양한 의뢰품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결방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1TV [도전, 골든벨]	19	고등학교 학생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재기 발랄한 말솜씨와 장기자랑을 볼 수 있어 꾸준히 시청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19	매주 일요일마다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한 스페셜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TV쇼 진품명품]	17	매주 일요일마다 전문 감정 위원의 해박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의뢰품을 볼 수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방송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일반인 출연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들이 출연자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모습이 보기 좋아 즐겨 시청했는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쉽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24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전국을 여행하며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1박 2일'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본 방송이 아닌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21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본 방송이 아닌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내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1TV [가요무대]	20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본 방송이 아닌 작년에 방송된 내용이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18	매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프로그램이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어 아쉽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8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으로 인해 고민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함께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4주 연속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콘서트 7080]	15	7080세대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당시의 인기 곡, 명곡을 오리지널 가수를 통해 들어보고 그 시절의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날은 본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콘서트 7080]	13	진행자 배철수의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당시의 인기 곡, 명곡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본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지난 11월에 방송된 내용이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3	시청자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주고 사연의 주인공과 토크를 진행하여 객석의 투표로 최고의 고민을 뽑는 프로그램이다. 매회 다양한 고민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느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1TV [TV쇼 진품명품]	12	매주 일요일마다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긴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민속품 등 다양한 의뢰품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방송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2TV [1 대 100]	11	1명의 도전자와 일반인 100명의 퀴즈 대결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락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 3

##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 1

#### 주요의견 선정 기준

#####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 2

##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

# 시 청 자 상 담

경영 혁신으로 재도약

# 일 일 보 고 서

---

2017. 4. 3.[월]

#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4.3.)

■ KBS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권혁일, 2690) [작성: (주)케이티스]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17. 3. 31.(금) 06:00 ~ 2017. 4. 3.(월) 06:00
- 상담건수: 2,193건
- 주요의견: 1TV 「아침마당」 - 방송 호평

##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아침마당」

방송일시 : 2017. 3. 31.(금) 1TV (08:25-09:30)

- 상담의견 : 방송 호평

이날 ‘공감토크 사노라면’ 코너에서는 ‘이럴 때 결혼 졸업! 결혼 하고파’라는 주제로 방송되었다. 함께 살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결혼 이후 생활에 하나의 선택지로 결혼이 최근 부부생활의 새로운 문화로 부상되고 있는데,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항상 공감되는 이야기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 제작본부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4. 3. 07:15 문자 통보)  
TV프로덕션1 담당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4. 3. 07:15 문자 통보)  
TV프로덕션1 팀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4. 3. 07:15 문자 통보).

### III. 일일 상담내용

#### 1. 상담실적 : 총 2,193건

#####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1)</sup>	계
1,359	62	2	-	770	2,193

#####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기타	계
898	832	38	1	-	424	2,193

#####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443	1,750	-	2,193

#####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664	60	191	278	2,193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방 제언</li> </ul> </li> <li>○ 수목드라마 「김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속 방송 요청</li> </ul> </li> <li>○ 「캠페인 제작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요청</li> </ul> </li> </ul> <p><b>【스포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프로야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제언</li> </ul> </li> </ul> <p><b>【보 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뉴스 9(경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제언</li> </ul> </li> <li>○ 「KBS 뉴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제언</li> </ul> </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호평</li> </ul> </li> <li>○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자 발언 제언</li> </ul> </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비지 감자탕’ 연락처 문의 114건</li> </ul> </li> <li>○ 「생생정보 스페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첩 회정식’ 연락처 문의 57건</li> </ul> </li> <li>○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카’ 구매처 문의 41건</li> </ul> </li> <li>○ 「열린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청’ 문의 29건</li> </ul> </li> <li>○ 「KBS 뉴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내용’ 문의 26건 외 1,361건</li> </ul> </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료 및 난시청」 문의 46건</li> <li>○ 「주파수」 문의 7건 외 7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78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53건</li> <li>○ 「전화교환」 문의 40건</li> <li>○ 「견학」 문의 11건 외 9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문의사항 외 277건</li> </ul>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의견	세부내용
제작 요청	<p>○ 「<b>캠페인 제작요청</b>」</p> <p>- 점점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진다. 운전자들의 여유가 사라지고 교통법규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개정된 교통 법규나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를 캠페인으로 제작해 알려주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조**</p>
[ 스포츠 ]	
방송 제언	<p>○ 「<b>2017프로야구</b>」 (10명)</p> <p>- 2017. 4. 1.(토) 2TV (13:50-18:00)</p> <p>- 2017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 경기를 중계방송 해주어 반가웠다. 9회 말 7 대 5 로지고 있던 삼성이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까지 가는 흥미진진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중단되었다. 이후 경기는 KBSN 스포츠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중계를 해주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계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의</p> <p>※ 참고</p> <p>- 실시간 방송시간 17시 56분 27초경, ‘정규방송 관계로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후 경기 상황은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로 자막 표기됨. [편성제작정보시스템]</p>

의견	세부내용
[ 보도 ]	
<p>보도 제언</p>	<p>○ 「KBS 뉴스 9(경인)」 ‘주민-관리업체 관리비 갈등…법정 다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3. 30.(목) 1TV (21:00-22:00)</li> <li>-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 오던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관리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보기 불편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양쪽 입장을 모두 보도해 주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위**</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부서답변&gt; 반대쪽 대표자인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과 이미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서 향후 후속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음. [경인방송센터]</li> </ul>
<p>보도 제언</p>	<p>○ 「KBS 뉴스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3. 30.(목) 1TV (21:00-22:00)</li> <li>-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8을 공개해 이와 관련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7 발화 파문 후 배터리 안전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 보도되는 점은 좋지만, 휴대전화를 광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보기 불편했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46 건 (방송기술 관련 9p 참고)
[ 월 간 ]	
다수 의견	⊙ 3월 일일상담보고 중 다수 의견 - 편성 : 132건
시청자 칭찬	⊙ 3월 시청자상담실 친절 직원 칭찬 건수 : 16건

### 3. 시청자상담 통계(2017.3.31.~4.3.)

(단위: 건)

####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30			7	37	
보도	334		1	6	341	
스포츠	74			30	104	
교양	912			4	916	
예능	167			5	172	
드라마	55			-	55	
라디오	36			2	38	
인터넷 방송	1			-	1	
계	1,609	0	1	54	1,664	

#### ○ 기술

수신료 및 난시청	46				46	
수신기술	6				6	
주파수	7				7	
디지털전환	-				0	
DMB	1				1	
계	60	0	0	0	60	

#### ○ 경영

전화교환	40				40	
사업 및 행사	3			1	4	
견학	11				11	
주차	5				5	
프로그램구입	53				53	
홈페이지	78				78	
계	190	0	0	1	191	

#### ○ 기타

기타	270		1	7	278	
계	270	0	1	7	278	

## 4

#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2017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 슈트라우스 일가의 경쾌한 음악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는 신년음악회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훌륭한 음악회를 시청할 수 있어 매우 좋았는데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 1TV 「KBS 스페셜 신년기획 2부작」

- 신년기획 2부작으로 편성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리더십' 1편을 시청했었다. 독일 국회의원의 겸손함과 진정성을 갖춘 메르켈의 리더십에 많은 감동을 받아 2편도 궁금했다. 그런데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편성으로 시청할 수 없어 아쉽다. 빠른 시일 내에 2편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옛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다른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주 시청자인 고령층은 이 방송만을 기다렸다. 차후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본 방송이 아닌 작년에 방송된 내용이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20일 보고서>

### ○ 1TV 「역사저널 그날」

- 지루할 수 있는 지식 역사가 아닌 이야기와 메시지로 풀어내어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유익한 방송이다. 시즌2 준비로 현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 1TV 「해외결작다큐」

- 4,500년 전 대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던 남자의 업무 일지와 피터 제임스라는 엔지니어의 급진적인 이론을 통해, 대피라미드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는 내용으로 1편을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시청하기 불편했다. 세계의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방송 시간을 평일 저녁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 1TV 「동물의 세계」

- 유럽의 최고 다큐제작사 등 세계 일류의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들이 제작한 고급 다큐멘터리들을 엄선해 우리말로 더빙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광주 지역에는 시청할 수 없어 아쉽다. 지역에서도 방송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빛나라 은수」**

- 일일드라마로 매일매일 빠짐 없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 뉴스특보도 중요하지만,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매일매일 빠짐 없이 챙겨보는 일일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방 없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과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며 진솔하고 유쾌한 삶의 이야기를 소통하는 신개념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선택 2017 KBS 대선 후보 경선토론」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시니어들의 다양한 인생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요일별 특화된 주제로 방송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세월호 인양작업 뉴스특보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세월호 인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교실험 및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믿음직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른 프로그램 편성으로 방송되지 않아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TV 「목요기획 2부작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 우리나라 독거노인 140만 명 시대에 은퇴 후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독한 생활을 소개하고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다. 방송을 처음부터 보지 못해서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제19대 대선 정강정책연설」**

- 정부 또는 정당이 국민에게 실현을 공약한 정책의 대강을 말하는 제 19대 대선 정강정책연설이 방송된다고 해 기대되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쉽다. 차후 방송 편성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당시의 인기 곡, 명곡을 오리지널 가수를 통해 들어보고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 세상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2주 동안 방송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 상황에 따라 편성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되도록 동일한 시간에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7080세대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당시의 인기 곡, 명곡을 오리지널 가수를 통해 들어보고 그 시절의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날은 본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1TV 「특집 19대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삶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당선자의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선거의 여정을 전하고 정치 인생과 성장 과정,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 편성되어 아쉬웠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스페셜」**

- 지난 2016년에 방송되었던 '곶자왓, 아버지의 숲을 걷다'가 재방송되었다. 매일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어 좋았는데, 정규 방송시간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본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경북 영양의 두메산골의 김용섭 서정선 노부부 이야기가 앙코르로 방송되었다. 3번째 앙코르 방송인데 정규 방송시간에 편성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8월 2일 보고서>

○ **1TV 「천상의 컬렉션」**

-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호스트들이 생생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6월 4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후 재방송만 되어 아쉽다. 방송시간이 변경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1TV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 기존 사극과는 달리 빠른 전개로 극의 몰입도를 높여 주어 젊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가 재방송되어 매일매일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뉴스특보로 드라마가 결방되었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고, 결방될 경우 차후 2편을 연속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21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고향의 의미와 정서를 느끼게 하며 농어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런데 방송되는 시간대가 직장인들은 시청하기 어렵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5일 보고서>

- 농어촌 소식과 함께 고향의 의미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의 문화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데 이 날은 결방 소식을 접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되도록 결방 없이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 국내 최초로 언론과 경찰청이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미제 사건 전문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차별화와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내용이 좋아 관심 있게 시청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본인처럼 방송시간에 맞춰 TV를 켜는 사람은 결방에 대한 안내 자막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정규 프로그램 결방은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일반인 출연자들의 우리말 퀴즈 대결을 볼 수 있어서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한 스페셜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일반인들의 따뜻한 사연과 숨겨진 실력을 볼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7일 보고서>
-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방송시간에 맞춰 TV를 시청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많이 아쉬웠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가 생중계되었다. 지난 3개월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토크 쇼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나 국내 현안인 북핵 문제나 살충제 계란 파문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중계 방송 예고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아쉬웠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고등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최후의 1인이 골든벨을 울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일반 상식이나 시사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웠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해 도자기, 그림, 민속품 등 의뢰품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다양한 의미가 숨겨진 근대 유물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웠다. <9월 26일 보고서>
-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민속품과 근대 유물의 가치를 살펴보는 고미술 감정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매주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민속품 등 다양한 의뢰품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1월 7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미워도 사랑해」

-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결혼과 이혼,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가족 드라마이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진 뉴스 특보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추후에는 드라마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편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1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바둑왕전」

- 국내 유일의 공중파 TV 속기전이며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매주 일요일마다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해당 방송 시간에 계속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11월 28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

- 촌데레 왕세자 이영(박보검 분)과 남장 내시 홍라온(김유정 분)의 예측불허 궁중위장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KBS 연기대상」에서 박보검이 최우수상을 시상한 것을 보니 다시 한번 시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시청자의 고민 사연을 소개 해주고 사연의 주인공과 유쾌한 토크 한 판을 벌인 뒤 객석의 투표로 최고의 고민을 뽑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시간이 너무 늦어 시청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있는 레전드의 노래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자신만의 느낌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무대 위에서 경합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주말에 방송되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매주 실력 있는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편곡해 불러주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되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 시간이다 보니 본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평일 낮 시간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들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재방송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1월 27일 보고서>

○ 2TV 「김과장 특별판」

- 1월 25일 첫 방송 시청 후 재미있는 것 같아 본 방송을 챙겨 보고 있다. 그런데 주말에 재방송을 하고 본 방송 이전에 특별판이 방송되어 자주 재방송되는 것 같다.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2TV 「TV 유치원」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교육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월요일에 방송되는 '캐리의 남남밥상' 코너는 '캐리와 장남감 친구들'의 진행자인 캐리가 아이들의 편식 문제 해결을 다루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이날 이 코너가 방송되지 않아 폐지된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2TV TV소설「별이 되어 빛나리」

- 1960년대를 배경으로 아버지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 후 해방촌에 살게 된 주인공이 거친 삶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일어서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기 좋았던 드라마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TV 「하숙집 딸들」

- 지금은 많이 사라져 가는 하숙집 문화를 다시 떠올리면서 실제 하숙집 안으로 들어가 일반 하숙생과의 하루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대대적인 리뉴얼을 하기 위해 결방되어 아쉬웠다. 알찬 멤버 구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니 기대하겠다. <3월 23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명의 도전자와 일반인 100명이 최후의 생존자 1인을 가릴 때까지 퀴즈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보고 있다. 유익한 내용을 퀴즈로 풀며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어 좋다. 그런데 3월 21일 방송이후 당분간 녹화예정이 없다는 소식을 접해 아쉬웠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명의 도전자와 일반인 100명의 퀴즈 대결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락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2월 7일 보고서>

○ 2TV 「2017 프로야구」

- 2017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 경기를 중계방송 해주어 반가웠다. 9회 말 7 대 5 로지고 있던 삼성이 동점을 만들며 연장전까지 가는 흥미진진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중단되었다. 이후 경기는 KBSN 스포츠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중계를 해주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계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2017 KBO리그 삼성 대 두산의 경기가 중계방송되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경기 진행 도중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정규방송도 중요하지만 중계방송 편성 시 여유롭게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2TV 「블러드」

- 뱀파이어 의사의 활약상과 멜로를 담은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드라마 이후 구혜선과 안재현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고 싶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적폐' 그 첫 번째, 일부 '재벌'의 폐해를 정면으로 겨냥해 2주 연속으로 '재벌과 비자금'이 방송된다고 해 기다렸다. 그런데 해당 시간에 편성변경안내를 보고 편성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시청자를 위해 되도록 갑작스런 편성 변경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5월 19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이름 없는 여자」**

- 홍지원(배종옥 분)이 윤설(오지은 분)을 손여리라고 확신하며 화를 내고 손여리(오지은 분)는 끝까지 침착하게 자신이 윤설(오지은 분)이라고 주장하며 전개되는 내용이 흥미진진했는데 이날 U20 축구중계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지극한 모성애 때문에 충돌하는 두 여자를 통해 여자보다 강한 두 엄마의 여정을 그린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결방이 잦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날도 축구 중계로 결방되었는데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1일 보고서>

○ **2TV 「쌈, 마이웨이 1-2회 특별판」**

- 드라마 특별판 편성으로 정규 프로그램인「제보자들」이 결방되었다. 그런데 주말과 이날 오전에도 재방송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판까지 중복적으로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7일의 왕비 스페셜」**

- 그동안 방송된 1회부터 4회까지의 주요 내용이 재방송 되었다. 이 때문에 평소 재미있게 시청하는「살림하는 남자들」방송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정규 방송을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2TV 「걸작다큐멘터리」**

- 영국 BBC가 제작·방송한 다큐멘터리로 영국 출신 역사학자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진행자로 등장한다. 금융사의 뒷이야기와 금융위기의 실체를 파헤친 내용이었는데 매우 유익했다. 돈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경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시 볼 수가 없어 아쉽다.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월화드라마 <학교 2017> 특별판 편성으로 인해 결방되어 아쉬웠다. 새로운 드라마를 편성할 때마다 기존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하는 것 같아 아쉽다. 정규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되도록 결방은 자제해 해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받침」**

- 스타가 자신의 독특한 사생활을 책 속에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해당 방송 시간이 평일 늦은 저녁시간에 편성되어 보기 불편하다. 본방송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쉽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2TV 「내 여자의 핸드폰」**

- 얼굴, 나이, 직업 대신 상대방의 핸드폰을 통해 이상형을 찾는 형식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특히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여러 특징들로 핸드폰 주인을 추리해나가는 과정이 신선했고 MC들의 진행도 매끄럽고 좋았다. 해당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8월 1일 보고서>

○ **2TV 「KBS 특선대작 전쟁과 평화」**

- 톨스토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가 직면한 고민을 높은 예술성으로 묘사한 클래식 영화다. 전쟁 드라마의 교과서라 할 만큼 장르적 특성과 주제의 깊이를 잘 살려내어 감동적이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8월 4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매주 금요일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와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하는 가요 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2주 동안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14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 스페셜」

- 매주 일요일마다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한 스페셜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9월 19일 보고서>
- 재미와 웃음을 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1박 2일' 예능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2주 연속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편성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내에 본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2TV 「김생민의 영수증」

-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가계 경제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특집 6부작으로 편성되어 곧 종영된다고 하니 아쉽다. 시청자들에게 더 알차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자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한 스페셜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9월 20일 보고서>

○ 2TV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NC 대 롯데의 경기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KBS 2TV에서 중계하다가 7회 초에 KBS 1TV로 변경되었는데 다시 10회 말에 KBS N 채널로 중계 변경되어 경기를 보기 불편했다. <10월 10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내 남자의 비밀」

- 네 남녀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엇갈린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0월 23일 보고서>

○ 2TV 「해피 투게더 3」

-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진행과 출연자들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0월 3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마녀의 법정」

- 독종 검사 마이툼(정려원 분)과 초임 검사 여진옥(윤현민 분)가 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프로 야구 중계로 인해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늦게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송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매 회 특정 주제를 정하여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기존 송분을 재편집한 '베트남 특별판' 편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배우 김승현과 민우혁, 송재희 스타 출연진들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살림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1R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 공정한 방송, 합리적 토론, 쟁점 현안에 대한 통쾌한 진단을 통해 거침없는 진단과 논의의 장을 펼치는 시사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청취했다. 그런데 얼마 전 종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R 「와이파이 초한지」

- 동양적 재미와 고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초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이날 다른 프로그램인「방재시스템, 예방이 우선이다」가 방송되어「와이파이 초한지」가 폐지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7월 4일 보고서>

○ 2R 「출발! 해피FM 김성은입니다」

- 김성은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출근길에 즐겨 듣는 방송이다. 이번 주부터는 방송이 1시간으로 축소되어 아쉬웠다. 기존과 동일하게 방송시간을 다시 변경해 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2R 「음악이 있는 풍경 이정민입니다」

- 드라마 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OST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별도의 고지 없이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당황스러웠다. <9월 8일 보고서>

○ 2R 「강서은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진행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편안한 진행, 밤 시간대와 적절히 어우러지는 선곡으로 즐겨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방송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10월 10일 보고서>

○ 1FM 「정다운 가곡」

-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가곡을 감상하는 가곡 전문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저녁시간에 편안하게 들으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방송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9월 8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세계 연주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음악가들의 가장 최근의 모습과 연주를 접할 수 있는 클래식 전문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이 날은 다른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되어 아쉬웠다. <9월 19일 보고서>

○ **1FM 「새아침의 클래식」**

- 국내 유일의 고전음악 전문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한다.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즐겨 듣는데 이 날은 본방송이 아닌 재방송이 나와 아쉬웠다. <9월 26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우리 전통문화와 생활풍속을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한민족 고유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너무 이른 새벽시간에 방송되어 아쉽다. 시간대를 변경해 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 2. 제작 요청 |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각종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깊게 잠을 자지 못하고 뜯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잠이 보약인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불면증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 긴장감 넘치는 일일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 시작 시 등장인물들의 소개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배우들의 이름이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방송 초기에 언급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우리사회 행정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동안 많은 출연자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보며 방송의 힘과 저력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많은 공감을 받았다. 그런데 방송시간이 5분이라 너무 짧은 것 같다. 방송시간을 길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1TV 「한국사」**

-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창세기를 장엄하게 담아낸 팩추얼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많은 왜곡이 이뤄지는 역사 드라마와 달리, 역사적 사실에 드라마를 가미한 형태로 전달력으로 높여주었다. 흥미를 높이는 드라마와 정보 제공 다큐멘터리의 균형을 잘 맞춘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클래식 오디세이」**

- 국내외 클래식 스타들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까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었다. 클래식의 매력을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건선은 붉은 반점과 비늘처럼 일어나는 피부각질(인설)을 동반한 발진(구진)이 주로 압력이나 마찰을 받는 부위 즉 팔다리의 관절 부위, 엉덩이, 두피 등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건선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5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일요토론」

- 시사프로그램은 출연한 패널들이 주로 의견을 나누고 방청객은 대부분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는 역할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방청객 역시 출연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주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 같다. <5월 31일 보고서>

○ 1TV 「강연 100°C」

-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일반인들의 강연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회도 빠짐없이 시청했다. 유명 인사들만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연을 지향해 보기 좋았는데 갑자기 폐지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가요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현시점에 잊지 않고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요즘 노래도 좋지만 6.25 이전에 유행했던 노래도 선곡해주면 좋을 것 같다. 주시청자의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기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감성툰 고맙습니다」

- 재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중국집 배달원에게 쪽지를 남겨 화제가 된 소녀 김시연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마음이 따뜻한 소녀라고만 생각했는데 입양아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소녀의 엄마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자신의 딸 입양 사실을 밝히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이웃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3일 보고서>

○ 1TV 「명견만리」

- 매주 1명의 유명인사가 출연하여 각종 미래 이슈에 대해 강연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유익한 방송으로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 잊었던 그 사건들을 전국의 장기미제 전담팀들과 다시 조명하고, 사건을 재해석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최초의 본격 미제 사건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내용이 좋아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2016 희망로드 대장정」

-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특정 문제를 이슈로 소개하고, 시청자들의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후원할 수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1월 15일 보고서>

○ 1TV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휴먼 토크 프로그램이다. 출연자의 극적인 순간을 드라마로 재연하고 토크로 인생사를 풀어보는 형식이라 흥미롭게 시청했다. 진행자 인순이의 편안한 진행과 출연자들의 감동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는데 종영되어 매우 아쉽다.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2월 7일 보고서>

○ 2TV 「백희가 돌아왔다」

- 조용한 섬 섬월도에서 과거의 스칼렛 오하라 양백희가 신분 세탁 후 18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를 그린 코믹 가족극으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배우들의 코믹하면서도 훌륭한 연기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후 내용을 다루어 후속 프로그램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참여하는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와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방방 곳곳 진솔한 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전해주어 즐겨 시청했었다.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TV 「뮤비뱅크 스타더스트 2」

-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규 앨범의 뒷이야기, 가수들의 속마음까지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신개념 뮤직비디오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우 신선해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3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고 김광석 탄생 53주년, 추모 21주기로 그를 추모하는 콘서트가 대구에서 열렸다고 들었다.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주옥같은 명곡을 남긴 고 김광석의 음악 이야기는 많은 감동을 준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고 김광석의 명곡과 이야기를 다루어 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

- 거대 '갑'에게 맞선 '을'들의 시원한 '핵사이'로 큰 재미를 준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결말에 '분위기 애매하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문구를 봤는데, 시즌2를 제작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유쾌한 드라마를 기대해 본다. <4월 3일 보고서>

○ 2TV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부부들의 모든 문제와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부부에게 제 3자의 입장으로 서로 미처 알지 못 했던 부분을 알려주어 좋았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2TV 「노래 싸움승부」

- 연예인 음악감독의 지휘아래 비가수 연예인들이 노래로만 대결하는 방송으로 즐겁게 시청했다. 방송으로 보면서도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다시 볼 수 없어 아쉽다. 시즌2 제작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2TV 「속보이는TV 인사이드」

- 방송이 끝날때 '재미로 보는 심리테스트' 제목과 함께 손바닥으로 보는 심리테스트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다음 장면이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토티 채널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본인처럼 고령자인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본방송에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7월 10일 보고서>

○ 2TV 「스타일 포 유」

-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 4명의 평소 옷차림을 점검하고 직접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트렌드를 파악하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시즌 1이 끝난지 2년이 지났는데 시즌 2 다시 볼 수 있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 잘 나가던 검사가 검찰 조직의 내부고발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소시민을 위한 양심 변호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짜임새 있는 내용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시즌 2를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2TV 「청춘불패 2」

- 대부도에서 펼쳐지는 걸그룹 멤버 8명과 함께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매주 주말 농장을 가꾸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겨운 느낌을 주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3을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2」

- 김숙, 홍진경, 강예원, 한채영, 홍진영, 공민지, 전소미 7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리얼리티에 가까운 '걸그룹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멤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3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2TV 「철부지 브로망스 -용띠클럽-」

- 연예계 대표 절친이자 용띠인 김종국, 장혁, 차태현, 홍경민, 홍경인 5명의 로망 실현 여행기를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20년을 함께한 이들의 추억과 소소한 일상을 통해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종영되어 매우 아쉽다. 시즌 2를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12월 21일 보고서>

○ 1R 「라디오 시사고전」

- 옛 고전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방송내용이 주로 중국 고사를 인용해 방송되는 것 같아 아쉽다. 우리나라 고전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이충헌입니다」

- 건강이슈 코너에서 가천대 길병원 호흡기내과 경선영 교수와 함께 결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약 간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국내에 여전히 결핵 발병이 많고 OECD 국가 중 결핵 사망률로 1위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전염성 질환이다 보니 청취하며 많은 걱정이 되었는데, 주로 전파경로와 증상에 대해서만 알려주어 아쉬웠다. 차후 예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주기 바란다. <7월 5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빛나라 은수」

- 이날은 윤수호(김동준 분)가 오은수(이영은 분)에 프로포즈를 한 후 집안 식구들에게 결혼선언을 했다. 이에 반대를 하는 윤수호(김동준 분)의 엄마 이선영(이종남 분)이 남편에게 “은수 엄마. 신랑 세상 뜨고 손바닥만 한 동네 세탁소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세탁소를 비하하는 발언이 듣기 불편했다. 극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2월 22일 보고서>
- 양숙이던 여스승과 여제자가 7년 후 한 형제와의 결혼으로 형님과 동서로 엮이는 것도 모자라 부모의 재혼으로 의자매가 되면서 겪는 좌충우돌 가족 힐링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이선영(이종남 분)이 며느리인 오은수(이영은 분)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학벌을 언급하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해 듣기 불편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자극적인 소재는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8년 전 오은수(이영은 분)가 김빛나(박하나 분)를 때리는 걸 목격했다며 거짓증언을 했던 정아(함연지 분)의 등장으로 오은수(이영은 분)와 김빛나(박하나 분) 사이에 또다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내용이 그려졌다. 그런데 김빛나(박하나 분)가 계속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청소년드라마「안단테」

- 전형적인 도시 아이인 시경(카이 분)이 시골로 전학 가면서 낯설고 두려운 경험을 극복하며 진정한 삶과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는 성장 드라마이다. 그런데 첫 회 방송부터 불량 학생들에게 맞고 있는 친구를 목격한 시경(카이 분)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친구를 외면하고 도망치다가 잡혀 돈을 갈취 당하고 맞는 장면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극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도 되도록 이러한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복선녀(라미란 분)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환자 분의 상태를 볼 때 뇌출혈,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복선녀(라미란 분)는 가족들에게 “나 죽어”라고 말했는데, 뇌종양이 마치 죽는 병처럼 다루어 이와 관련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보기 불편했다. 차후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2TV TV소설「저 하늘에 태양이」

- 혈혈단신으로 상경한 순수한 여자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끝내 자신의 진정한 꿈과 사랑을 완성하는 파란만장 성공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 배춘자(한가림 분)가 시누이인 강인경(윤아정 분)을 '올케 언니'로 계속 불러 듣기 불편했다. 남편의 누나는 시누이로 '형님'이 맞는 표현이다.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김과장」

- 힘들고 지친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선사해 주는 오피스 휴먼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중에 '빵구, 빠구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 되도록 우리말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유쾌한 오피스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박현도(박영규 분)가 "처리해 김과장. 다시 내 눈 앞에 나타나지 않게 없애 버려"라고 지시한 뒤 폭력배들이 밧줄로 김성룡(남궁민 분) 목을 감아 죽이려는 장면이 나왔다. 극중 필요한 장면이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연출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다시, 첫사랑」

- 첫사랑에 갇혀 사는 남자와 첫사랑을 지운 여자가 8년 만에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그런데 극중 백민희(왕빛나 분)가 아이를 빼돌리거나 남편의 사고를 조장하는 등 악행이 점점 심해져 보기 불편했다.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속 시원한 내용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3월 9일 보고서>

○ 2TV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 1960, 1970년대를 배경으로 시대의 비극이 빚어낸 아픈 가족사를 딛고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누는 세 모녀의 가슴 시린 성장기를 담은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 보기 불편하다. 가족 간의 화합을 보여주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4월 14일 보고서>
- 1960, 70년대를 배경으로 시대의 비극이 빚어낸 아픈 가족사를 딛고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누는 세 모녀의 가슴 시린 성장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이날은 밀가루에 석회를 섞어 상대방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내용이 전개되었는데, 모방의 위험이 있는 극단적인 내용보다 현실적인 극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5월 15일 보고서>
- 6, 70년대를 배경으로 시대의 비극이 빚어낸 아픈 가족사를 딛고 피보다 진한 정을 나누는 세 모녀의 가슴 시린 성장기를 담은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주인공 김선우(최성재 분)와 윤수인(오승아 분)의 결혼이 무산되고 이별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전개가 두 사람의 사랑보다 출생의 비밀로 흘러가면서 결말이 나지 않아 답답하다. 앞으로 빠른 전개를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7월 10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이름 없는 여자」

- 지극한 모성애 때문에 충돌하는 두 여자를 통해 여자보다 강한 두 엄마의 여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홍지원(배종옥 분)이 자신의 아들 구해성(주승혁 분)의 골수이식을 위해 손여리(오지은 분)를 감금하고 강제로 데리고 가는 등의 연출이 보기 불편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길이라도 너무 지나친 설정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자동차 안에서 구도치(박윤재 분)가 운전하면서 손여리(오지은 분)와 대화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보조석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길어 자녀와 함께 시청하는데 보기 좋지 않았다. 추후 방송에서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6월 14일 보고서>

- 그동안 펼쳐왔던 손여리(오지은 분)의 복수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갈등과 대립으로 극의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김마야(김지안 분)에 관련된 출생의 비밀이 그려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할머니로 나오는 홍지원(배종옥 분)이 아이한테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을 해 아동학대로까지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6월 28일 보고서>

- 손여리(오지은 분), 홍지원(배종옥 분) 두 여자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모성애'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는 드라마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홍지원(배종옥 분)의 끝없는 악행으로 인한 자극적인 설정으로 시청하기 불편하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밝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 <7월 17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아버지가 이상해」**

- 평생을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온 성실한 아버지 한수와 든든한 아내 영실, 개성만점 4남매 집안에 어느 날 안하무인 아이돌 출신 배우가 얹혀살며 벌어지는 코믹하고 따뜻한 가족드라마이다. 그런데 내용 중 동거 또는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이 나와 보기 불편하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는 드라마인 만큼 자극적인 내용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쌈, 마이웨이」**

- 마이너리그 청춘들의 성장로맨스로 기존과는 다른 재미가 있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대사 중 비속어 사용으로 “빠”하고 효과음 처리되어 전체적인 몰입에 방해가 된다. 비속어 사용을 줄여준다면 시청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 제작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2TV 주말 드라마「황금빛 내 인생」**

- 이 날은 여주인공 서지안(신혜선 분)이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VIP 고객의 갑질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는 굴욕을 동생 지호(신현수 분)에게 들키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영화도 아닌 온 가족이 보는 주말 드라마에서 극단적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매드독」**

- 사설 보험범죄 조사팀 '매드독'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인물들의 대사 중에 상스러운 욕설이 그대로 방송돼 시청하기 불쾌했다.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이겠지만 욕설은 적절한 편집을 거쳐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 <10월 20일 보고서>

○ **2TV TV소설「꽃피어라 달순아」**

- 한홍주(윤다영 분)의 계략에 빠져 간첩죄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정윤재(송원석 분)와 고달순(홍아름 분)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고문관들에게 간첩죄 혐의로 모진 고문을 받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자극적인 연출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내 남자의 비밀」

- 이 날은 위선애(이휘향 분)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지섭(송창의 분)과 진해림(박정아 분)이 병실에 누워있는 강재욱(송창의 분)의 산소호흡기를 벗기며 살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등장인물들의 끝없는 악행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렵고 시청하기 불편하다. 추후에는 밝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12월 14일 보고서>

4. 출연자·진행자

○ 1TV 「생방송 일요토론」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만연한 특권과 특혜,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주필 정규재가 다른 패널이 말하는 중 끼어들거나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등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차후 출연자 섭외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탄핵소추위원 및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여야 중진의원들을 초청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출연자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칭 없이 '박근혜'라고 계속 칭해 듣기 불편했다. 탄핵이 진행중이더라도 아직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 만큼 출연자 발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나라도 3만 원 주면 나가겠다는 분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발언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주요 정당의 선대위 핵심 책임자들과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과연 어디에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유례없이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맞아 후보들 공약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보기 불편했다. <5월 8일 보고서>
- 적폐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올바른 적폐청산과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적폐청산 논란의 실체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날 출연자들이 중립적인 아닌 편향적인 입장의 발언을 해 듣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중립적인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출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치탄압의 문제는 아닌지 궁금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출연을 잠정연기해 줄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이지만 출연자 섭외 시 오해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이날 생생토크 당신의 선택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 결혼해? 말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결혼에 관한 주제인데 미혼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혼한 지 오래된 출연자들로 현 시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 등 현실적인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젊은 기혼자들을 섭외해 주면 좋았을 것 같다. 차후 출연자 섭외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목요특강에서는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작은 병이 사람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런데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을 해 듣기 불편했다. 방송에서는 되도록 편향된 의견을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이 날 '내 말 좀 들어봐' 코너에서 아내의 옷차림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화가 나는 남편과 자신의 패션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아내가 출연했다. 그런데 부부가 고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가 승골이 보이는 의상이 보기 불편했다. 사전에 출연자 의상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 <7월 6일 보고서>
- 이날은 '화요 초대석' 코너에서 뮤지컬 배우 남경읍과 함께 '데뷔 40년, 뮤지컬 1세대의 귀환'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그런데 남경읍이 동생 남경주에 얽힌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패널인 개그맨 김학래가 동생의 성격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출연자에게 무례한 발언인 것 같아 듣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발언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8월 31일 보고서>
- 매주 수요일에 방송하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내 말 좀 들어봐' 코너를 좋아한다. 남녀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진행이 좋아서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자 아나운서가 단독 진행하여 아쉬웠다. <10월 12일 보고서>

○ **1TV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8명을 차례로 초청하여 심층 대담 형식의 토론을 하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연한다고 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연이 취소되어 아쉬웠다. 향후 다시 섭외되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2016-2017 V리그」**

- 2016-2017 V리그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방송을 보던 중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가 중단되며 캐스터가 'KBS N 스포츠' 채널에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해당 채널에서는 여자 농구 중계가 진행되어 당황스러웠다. 착오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2017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 제 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 사상 처음 원고 없는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되어 신선하고 긴장감을 높여 주었다. 또한 토론 주제가 다양해 유익했다. 그런데 토론회가 후보들의 정책검증을 위한 방송인데,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고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리고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4월 21일 보고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되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해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분야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보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네거티브 전략만 펼쳐 아쉬웠다. <4월 25일 보고서>

○ 1TV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방송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각 당의 대선후보들의 경제 정책 및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드배치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분분해 보기 불편했다.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일반인 출연자들의 우리말 퀴즈 대결을 볼 수 있어서 즐겨 시청하고 있다. 6월 9일은 3번째 출연으로 한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출연자가 나왔다.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냈으며 독주를 막지 못해 퀴즈 대결 하는데 긴장감이 없어서 아쉬웠다. 비슷한 출연자였다면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출연자 선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6월 14일 보고서>

- 한글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며 올바른 표현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 특히 엄지인 아나운서가 매끄럽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더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엄지인 아나운서 대신 성세정 아나운서가 진행하여 아쉬웠다. <9월 20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청송읍 용전천변 특설무대에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기념하는 공연이 방송되었다. 국악인 송소희와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합동 무대로 시작한 '아리랑'은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여자 가수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시청하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해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대중음악, 클래식, 성악,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품격 높은 무대를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자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았는데 다른 아나운서가 나와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1TV 「사람과 사람들」

- 새로운 삶을 선택한 개인들의 생활을 보여주어 대리만족의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날은 '오프로드'에 도전하는 여성 바이커 3인방 이야기가 가수 최백호의 내레이션과 함께 방송되었다. 그런데 내레이션이 느린 경상도 사투리로 진행되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쉬웠다. <8월 30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출연하여 노래 실력을 뽐내는 방송으로 좋아한다. 특히 도경완, 장윤정 부부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평소와 달리 가수 장윤정이 단독 진행하여 아쉬웠다. <9월 26일 보고서>

- 객석 평가단 100명의 선택으로 승자가 가려지는 일반인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다. 가슴 찡한 인생사와 잊지 못할 추억까지 들려주어 좋았다. 특히 도경완, 장윤정 부부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은 보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수 장윤정이 단독 진행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11월 6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농어촌의 다양한 이야기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김재원, 김솔희 아나운서가 매끄럽게 진행해 주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른 아나운서들이 진행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12월 15일 보고서>
- 김재원, 김솔희 아나운서의 차분하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농어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다른 아나운서들이 진행하여 아쉬웠다. 이른 시일 내에 기존의 진행자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타 방송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무례한 언사와 진행으로 개그맨 이휘재가 사과를 전했다지만 악플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도 타 방송을 시청하며 이휘재의 무례한 진행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는 등 원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해 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이범수네 가족의 마지막 촬영으로 처음 방송부터 함께했던 과정을 보여주고 그만큼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방송말미에 보여주었는데 감동적이었다. 서툰 아빠에서 진정한 아빠가 되기까지 고군분투한 이범수와 착하고 바르게 성장한 소다남매의 모습이 그리워질 것 같다. <5월 16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1월 중으로 다시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의 복귀가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복귀 시점을 다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청산도로 떠난 '제 1회 단합대회'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장점 릴레이부터 댄스경연까지 유쾌한 시간들을 가지며 멤버들이 단합대회를 펼치고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멤버들이 연두색 단체옷을 입고 나와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 보였다. <4월 25일 보고서>

○ 2TV 「해피 투게더 3」

- 웹툰작가 기안84에게 "만약에 엄현경이 기안84의 여동생이라면 어떨 것 같나"는 질문에 기안84가 "제가 좋아할 거 같은데... 부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일부 출연진이 "알면 공중파에 맞는 멘트를 해달라"고 말하거나 '심의 부적격'으로 자막 표기되었는데, 보기 불편했다. 이러한 내용은 편집 시 수위 조절해 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개성 강한 대세 남녀들이 출연한 '예능 공조' 특집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이날 박명수가 김슬기에게 "욕 몇 개만 해주면 안 돼요?"라고 하자 김슬기가 "염병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하고 자막에 '염X하고 자빠졌네'로 표기되었다. 김슬기 캐릭터의 일부분이었다 할지라도 방송에서 비속어 사용은 보기 좋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마음의 소리' 새 코너에서 가수 이효리가 출연했다. 이효리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요가를 한다. 그런데도 화가 안 다스려질 때가 많다"라며 목욕탕 일화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목욕탕에서 무리를 지어 있는 아주머니 관련하여 '패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7월 18일 보고서>

- 2부 '전설의 조동아리-내 노래를 불러줘' 코너에 게스트로 가수 이석훈, 뉴이스트 W 멤버 JR & 백호(본명 강동호)가 출연하였다. 그런데 백호(본명 강동호) 출연자는 최근에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10월 16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밤새 많은 눈이 내렸고 아침에도 내리고 있어 첫 소식으로 일기예보를 전해 주었다. 그런데 기상캐스터가 현재 적설량을 알려주며 '보은' 지역을 '충남 보은'이라고 말했는데, '충청북도 보은군'이 맞다. 정확한 행정구역으로 일기예보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 쇼트트랙 남녀 500m 준결승, 결승 경기가 중계되었다. 김동성, 진선유 해설위원이 나와 올림픽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진선유 해설위원이 첫 데뷔 방송으로 많이 긴장했는지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아 보기 불편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시청자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연이 많이 소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제로 고민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이날 사연에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남편으로 인해 갈등 중인 부부가 출연했다. 그런데 아내가 큰 수술을 두 번 하고 나서,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남편에게 진행자가 수술을 언제 했냐고 물었다.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며 아내를 수술실로 밀어 넣은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발언했다. 마치 남편이 원인 제공한 것처럼 표현해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진행자가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이웃집 찰스」

-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리얼 적응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고충과 우리나라 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패널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베트남 며느리들을 꺾어 11억을 빌려가고 사라진 베트남 아내에 관한 사연이 소개됐다. 피해를 본 베트남 며느리는 총 18명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결국 마지막에 11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구속된 내용 외에 정확한 형량이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법조인들도 같이 출연하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4월 26일 보고서>

- 의문의 제보를 단서로, 미스터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이날은 분노 웅덩이 옆 비닐하우스에 사는 92세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다섯째 아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고 새로 집을 짓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화가 났다. 문제점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섭외하여 조언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방송 제작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기존의 명곡을 리메이크해서 가수들이 경연을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훌륭한 전설들이 출연했는데, 많은 명곡을 갖고 있는 가요계의 전설인 나훈아를 보고 싶다. 전설로 섭외해 주기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 「황금빛 내 인생」**

- 주말연속극 「아버지가 이상해」 후속으로 「황금빛 내 인생」이 방송되는데, 주인공으로 배우 박시후가 출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박시후는 2013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주인공으로 섭외되었다니 놀라웠다. 주말에 온 가족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흙수저'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가 가짜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가족 드라마로 첫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성추문 논란을 빚었던 배우 박시후가 주인공으로 섭외되었다니 놀라웠다. 주말에 온 가족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2TV 금토드라마 「최고의 한방」**

- 배우 윤순하의 초등학생 아들이 동급생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두 번에 걸쳐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이다. 그런데 드라마에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출연자를 하차시켜 주기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2TV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냄비받침」**

- 각 회별 스타들이 출연해 직접 선정한 주제로 책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그려지는 방송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임시전국당원대표자회의에서 안철수 후보가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주요한 정치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를 섭외하여 방송해 주면 좋을 것 같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유익한 정보와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조충헌, 이슬기, 도경완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근감 있는 진행이 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그런데 세 명의 아나운서 없이 방송이 진행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9월 21일 보고서>

- '자연에 살으리랏다' 코너에서 산중 생활을 하고 있는 81세 심상기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젊은 리포터가 81세인 출연자에게 계속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듣기 불편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출연자에게 '형님' 호칭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추후에는 호칭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2월 28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인 대 100인이 퀴즈를 풀어 대결하는 방식으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특히 조충현 아나운서가 매끄러운 진행을 해주어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조충현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아나운서가 진행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10월 19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매주 금요일마다 연예가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배우 신현준과 정지원 아나운서가 매끄럽게 진행해 주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배우 신현준이 단독 진행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12월 18일 보고서>

○ 1R 「KBS 공감토론」

- 이날은 대선주자 행보 진단 및 대선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행자 말도 수긍하지 않고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가 본질이다”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본인의 의견만 주장해 듣기 불편했다. 진행자가 말한 것처럼 아직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슴 아픈 유족들도 많이 있는데, 본질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본인 의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의견도 중요시하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 매주 수요일 '매거진 플러스!' 코너에서는 정부희 고려대 한국곤충연구원과 함께 곤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우리 몸속에 사는 기생충과 해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출연자가 곤충과 기생충을 가리켜 '애네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애네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출연자 발언에 주의를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매주 수요일 '매거진 플러스!' 코너에서는 정부희 고려대 한국곤충연구원과 함께 곤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편식하는 곤충에 대해 방송되었는데, 출연자가 곤충들을 가리켜 '애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듣기 불편하다. '애네'는 '이 아이'의 준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4월 27일 보고서>

○ 1R 「음악이 흐르는 밤」

-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엔 뮤직토크' 코너가 진행되는데,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 팝송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팝송을 들려줄 때 가사를 풀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날 선곡된 밥딜런 노래의 경우 어려운 곡들이 많은데, 청취자들이 노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3월 31일 보고서>

○ 1R 「스포츠 스포츠」

- 스포츠 소식을 전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최근 방송 시작 시 2017 KBO 리그 소식을 전해주어 좋다. 그런데 방송시간에 경기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은데, 방송 종료 전 경기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4월 28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 매주 금요일 '금요건강토크'에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의학정보와 지식을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날은 박용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남정미가 출연하여 무지외반증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남정미가 불필요한 농담을 하여 진행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 청취하기 불편하다. 진행자나 출연자 발언 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R 「뉴스와 화제」

- 진행자가 방송 말미에 계란, 살충제 논란이 많은데 '담배 한 모금에는 그보다 더한 유해한 물질이 많다'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살충제 논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본인도 담배를 피우지만 살충제 논란과 담배를 피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진행자의 발언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1R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전환 불가'를 최종 선언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 패널이 교육계 인사도 아닌 경제학과 교수라 아쉬웠다. 앞으로는 출연자 섭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9월 15일 보고서>

○ 1R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

- 역사, 문학,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자 이주향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방송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어 좋았다. 고전문학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경제 지식, 미술작품 등에 내포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유익했다. <9월 18일 보고서>

○ 1R 「어업기상통보」

- 어민들의 안접 조업과 수산업 진흥을 위해 해상의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날 기상 통보하는 진행자의 음성이 낮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정확한 발음과 안정된 음성으로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 생활에 필요한 의학 정보와 경제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자가 차분하고 편안하게 내용을 전달해주어 방송에 집중하기 좋다. 앞으로도 안정감 있는 목소리와 매끄러운 진행으로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 법률, 경제를 비롯해 재테크와 스포츠 분야까지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여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자가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방송 내용을 잘 짚어주고 질문해주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청취자가 방송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11월 15일 보고서>

○ 1R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 뉴스와 함께 인문학과 건강, 스포츠까지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어 좋았다. 김홍성 진행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인데 최근 들어 김홍성 진행자가 아닌 다른 진행자가 진행하여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2월 12일 보고서>

○ 2R 「허수경의 해피타임 4시」

- 가요와 올드팝 등 음악과 생생한 사연으로 편안한 오후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청취한다. 그런데 방송 중에 진행자인 허수경이 하차한다고 말해 애청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고생한 허수경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3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유열입니다」

- 대중적인 팝음악과 사연으로 진행하는 아침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라디오 개편으로 진행자가 변경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잘 진행해 준 유열에 수고했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2월 6일 보고서>

○ 2R 「음악이 있는 풍경, 이정민입니다」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음악과 영화음악 등 대중적인 삽입곡에서부터 클래식 영화음악, 뮤지컬음악 등 이미지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다양한 OST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정민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아나운서가 진행해 진행자가 교체된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2R 「오유경의 해피타임 4시」

- 가요와 올드팝 등 선곡되는 음악과 오유경 아나운서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진행이 좋아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유경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진행자가 진행하여 아쉬웠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0월 23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라디오 7080」

- 중장년층 청취자들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적절하게 선곡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음악과 함께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편안한 오후를 즐길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진행자 임백천의 차분한 음성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듣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월 일 보고서> <11월 30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박명수가 서울의 한 대형클럽에서 열린 공연에서 유명 DJ의 음원을 불법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번의 해명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과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2FM 「이근철의 굿모닝 팝스」

- 팝 음악, 영화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즐거운 영어 학습을 유도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고생한 이근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1일 보고서>
- 팝 음악, 영화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즐거운 영어 학습을 유도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다. 이근철 진행자와 함께 존 발렌타인의 원어민 발음을 들을 수 있어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진행자가 진행하여 아쉽다. 이전 진행자들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 개편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2월 13일 보고서>

○ 2FM 「심야식당」

- 심야시간대 지치고 허기진 청취자들의 심신을 달래는 본격 리퀘스트 음악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교체된다고 들었다. 그동안 고생한 윤성현 PD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8일 보고서>

○ 2FM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 이근철의 굿모닝팝스에서부터 매일 아침 즐겨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진행자가 레이나로 변경된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속도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15일 보고서>

○ 2FM 「온주완의 뮤직쇼」

- 음악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동안 유지원 아나운서가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좋았는데, 이날부터 진행자가 변경되어 아쉬웠다. 그동안 고생한 유지원 아나운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5월 17일 보고서>

○ 2FM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요」

- 1995년 방송을 시작한 KBS 라디오의 프로그램으로, 이본, 최강희, 메이비, 유인나 등 다수의 스타 DJ를 배출했다. 최근 조윤희가 출산 준비로 하차한 이후 최강희가 임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곧 김예원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유인나는 2014년 KBS 연예대상에서 라디오 DJ상을 수상했는데, 다시 이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2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길에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다. 기존 DJ 하차 후 배우 김예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진행하여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앞으로도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진행자가 되길 바란다. <7월 31일 보고서>

○ 2FM 「황정민의 FM대행진」

- 매일 활기찬 목소리로 상쾌한 음악과 선별된 정보를 제공해주어 빠짐없이 청취한다. 특히 황정민 아나운서의 경쾌하고 매끄러운 진행은 방송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어 좋았다. 그런데 진행자인 황정민이 육아 휴직으로 인해 하차한다는 소식을 접해 애청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청취자들과 함께 교감하고 자리를 지켜준 진행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8월 29일 보고서>

○ 2FM 「이흥기의 키스 더 라디오」

- 젊은 청취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과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자인 이흥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기찬 목소리에 쌓인 피로까지 풀리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청취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친근한 진행 능력이 듣는 재미를 더해 준다. 앞으로도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행자가 되길 바란다. <9월 22일 보고서>

○ 한민족R 「통일열차」

- 주간 한반도 이슈 분석과 함께 전 세계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서기철 진행자가 매끄럽게 진행해 주어 편안히 방송을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다른 진행자가 진행하여 아쉬운 마음이 든다. <12월 22일 보고서>

## | 5. 공정성 |

### ○ 1TV 「생방송 일요토론」

-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는 탄핵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토론하고, 심판 이후 결과에 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날 출연자들이 중립적인 아닌 편파적인 입장의 발언을 해 듣기 불편했다.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중립적인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 2TV 「2016 KBS 연기대상」

- 홈페이지에서 2016년 네티즌상 남녀 수상에 대해 사전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2016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는 남자 네티즌상만 수상을 해 의아했다. 여자 부분의 투표현황이나 1위를 누가 했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소명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 2TV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광주>」

-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기아 대 두산의 경기가 광주 구장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경기를 중계하면서 경기 분석과 해설이 기아 타이거즈 팀 위주로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다. 앞으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10월 30일 보고서>

### ○ 비채널 「KBS뉴스 트위터」

- 공영방송의 공식 트위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와 관련 내용으로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런데 해시태그가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단어들로 느껴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내용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 6. 사실성 |

### ○ 1TV 「특집다큐 건강보고, 수산물 안전합니까?」

- 수입 수산물의 의존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 수산물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 부산의 대표적인 자갈치 시장이 소개되었는데,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잘못 표기되었다. 부산 자갈치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가 맞다.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 1TV 「4시 뉴스집중」

- 노은지 캐스터의 날씨 집중 코너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어 매우 재미 있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알려주는 자료화면에 '2107/1/1'로 잘못 표기되었다.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 1TV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행사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하는데, 자막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 어떤 인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다. 차후에는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속보」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6시 내고향」을 시청하던 도중 뉴스속보에 '말레이시아 언론 김정은 피살 용의자 2명 체포'로 자막 표기가 잘못 나왔다. 뉴스 전달 시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를 임명하는 내용에 대해서「TV쇼 진품명품」 방송 중 속보 자막으로 알려 주었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길 바란다. <6월 19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98주년 3.1절 기념식」

- 직접 세종문화회관을 갈 수 없었는데 KBS 방송을 통해서 3.1절 기념식 중계방송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3.1절 노래 가사를 자막 표기하는데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를 '선열아'로 잘못 표기하였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방송화면 하단에 단신뉴스를 보여주어 전체적인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이날 기존 방식인 자막을 고정시켜 나타내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자막이 함께 나오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 당황스러웠다. 오류 없이 자막을 송출해 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40대 용의자 체포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를 '전북 순창'에서 붙잡았다고 보도해야 하는데 기자가 '전남 순창'으로 지명을 잘못 발언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1TV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 중국 충칭 화상산에 묻힌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에서부터 왔으나 결국 무덤을 찾지 못한 아들의 사연을 듣고 이윤석이 문맥상 다른 나라의 아주 먼 곳을 뜻하는 "이역만리(異域萬里)까지 왔는데 못 찾은 거야?"라고 말했는데, 자막에는 '2억 만 리까지 왔는데 못 찾은 거야?'라고 잘못 표기되었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UHD 특집 10부작 걸어서 세계한바퀴」제1편 바이킹이 숨겨둔 천국 아이슬란드'에 대해 방송했다. 방송 시작 후 아이슬란드의 수도, 면적, 인구에 대한 자막 표기 시 아이슬란드의 인구를 330만 명으로 잘못 표기 하였다. 추후 방송에서는 동일한 실수가 없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라인」

- 터키 이스탄불 32년 만의 폭우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외신캐스터가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라고 했다.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가 맞다. 앞으로 보도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 예로부터 조상들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여름을 보냈던 대표적인 음식이 소개되었다. 바닷가 지역의 물회와 내륙 지방의 삼계탕이 방송에 나왔다. 그런데 울진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막에 '경상남도 울진군'이라고 표기되었다. 울진항은 경상북도에 속해있는 행정구역이다. 자막 표기 시 행정구역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 <7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5」

- 뉴스 말미에 기상정보를 제공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오늘의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북 양산'이라고 자막이 표기되었다. 양산은 경상남도에 속해있는 행정구역이다. 자막 표기 시 행정구역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광견병으로 어린 남매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광견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도 평균 일주일, 치료를 하지 않으면 25일 이내에 거의 100%의 환자가 사망한다'고 내용이 잘못 보도되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고대 그리스 시기에 번성했던 '리키아 제국'의 옛 영토를 걷는 고대 역사 트레킹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터키 안탈리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내레이션에서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라고 말했는데,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이다.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

- 뉴스를 시청하면서 하단 자막 뉴스도 자주 확인한다. 그런데 날씨 관련 내용에서 '맑고'를 '말고'로 자막이 잘못 표기하였다. 추후 방송에서는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9월 13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 날은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비타민인 '겨울 과일 건강법'을 주제로 유자, 딸기, 산수유, 감의 효능을 자세히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그런데 출연자가 우리나라 딸기 주산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경남 거창'을 '경북 거창'으로 잘못 발언했다. 추후에는 행정구역 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 <12월 8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기존의 뉴스 형식을 탈피해 보다 친근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을 보며 하단에 기재된 「KBS 뉴스」도 자주 확인하는데, 이날 갑자기 하단 뉴스가 전반부에는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경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충원 참배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하단 단신뉴스에 '봉화마을'로 표기되었는데, '봉하마을'이 맞다.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이 날은 '강승화의 연예 수첩' 코너에서 한 가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이색 연기 전문 배우 주제로 방송되었다. 첫 번째 배우 하정우 자료화면으로 '먹방계의 신'이라는 멘트와 함께 자막이 표기됐다. 그런데 한자가 '神'자로 표기되어야하는데 '申'자로 잘못 표기됐다. 앞으로는 정확한 한자어를 표기해 주기 바란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이날 삼바총각의 고향생각 코너에서는 충남 당진군 대호지마을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왼쪽 상단에 '충북 당진군 대호지마을'이라 표기되었는데, '충청남도 당진시'가 정확한 행정구역이다.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KBS 뉴스속보」

- 일일드라마「다시, 첫사랑」이 재방송되어 시청하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발표가 진행 중이라 해당 내용도 궁금했는데, 뉴스속보로 알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자막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잘못 표기해 보기 불편했다. 오타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장례도 결혼처럼 미리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누구나 알아야할 장례 절차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이필도가 화장 장려금을 화장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모든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나왔다. 정확한 내용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22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추석 황금연휴에 갈 중남미 여행지 특집으로 멕시코 칸쿤과 쿠바 아바나 여행지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영화평론가 김태훈과 영화감독 이원석이 영화 대부 2의 촬영 현장인 카프리 호텔을 방문하는 장면에 영화 '대부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대부에 배경'이라고 나왔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막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 <9월 13일 보고서>

○ 1R 「라디오 교통캠페인」

- 얼마 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있어 이와 관련해 겨울철 졸음운전의 위험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를 '전라북도 순천시'로 잘못 말해 듣기 불편했다. 오류 없이 정확히 말해 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R 「뉴스 중계탑」

-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을 병원 CT 기계로 조사하다 머릿속에서 불경 한 첩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뉴스를 보도한 취재기자가 "전라남도 남원 실상사"라고 말했는데, 남원은 전라북도이다. 정확한 행정구역명으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 1R 「생방송 일요일 아침입니다」

- 복날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출연자가 초복, 중복, 말복 기준을 설명하던 중에 8월 7일 경이 '처서'라고 발언했다. '입추'가 정확한 정보다. 출연자가 잘못된 정보를 발언할 때 제작진이나 진행자가 신속히 정정해 주기 바란다. <7월 24일 보고서>

○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 오프닝에서 진행자가 퀴즈 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수박'이었다. 그런데 수박을 과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채소가 맞다. 초등 교과서에도 수박은 채소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1R 「뉴스 중계탑」

- 일본 시마네 현이 한국인 대상 웹사이트에 '동해'를 한글로 병기했다가 외부 지적을 받았다면서 최근 이를 삭제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두 번이나 일본 시마네 현을 시네마 현으로 발음했다. 앞으로 청취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9월 11일 보고서>

○ 2FM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 팝음악, 영화, 뉴스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동시에 재미도 추구하는 에듀테인먼트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 스크린 잉글리시 코너에서 교재의 12일 수요일 부분이 잘못 방송되어 혼란스러웠다. 교재 순서에 맞게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 7. 시청자권익 |

○ 2TV 「배틀 트립」

- 배우 오현경과 정시아가 베트남 다낭 응우한썬 전망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화면이 사용되었다. 촬영하던 과정에서 방송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었는데 본인의 모습이 방송되어 당황스럽다. 이는 초상권 침해로, 촬영 시 방송 여부에 대해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7일 보고서>

## | 8. 프로그램 호평 |

○ 1TV 신년기획「디렉터스컷」

- 인도의 오지 차(cha)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자식에 대한 교육만이 혹독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일념으로 오다가다 죽을 수도 있는 험하고 위험한 길, 학교 가는 길을 나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해가 떨어지면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험한 길을 떠나는 아버지들의 모습에 마음이 짠해졌다. 힘든 여정의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9일 보고서>

○ 1TV 힐링 다큐 3부작「나무야 나무야」

- 나무와 숲에 사는 생명들의 소박하고도 신비로운 생태와 숲의 색, 소리, 향기, 나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위로와 행복의 의미를 전달하는 특집 다큐멘터리이다. 김미숙, 강혜정, 박솔미 등 여배우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숲이 숨겨놓은 큰 울림과 위안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정치, 사회적 시국으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국민과 함께, 방송 90년 기획「아침마당」

- 라디오 개국 90주년 특집으로 '내 마음 속의 라디오'라는 주제로 방송되었다. TV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라디오는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동안 KBS 라디오와 오래 함께한 전설들을 섭외해 축하하는 방송을 해주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KBS 라디오가 계속 유지되어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며 축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댁의 자녀, 행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존재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는데 공감이가 갔다.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3월 17일 보고서>

- 목요특강이 있는 날로 황창연 신부가 자신 꺼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꺼안아야 하며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신에게도 멘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인상 깊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송이었으며 앞으로도 인문학 강의를 자주 해주기 바란다. 유익한 방송을 해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부산)」

-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주거 안정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녹지를 파괴해 업자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주민들 입장에서 뉴스테이 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자세히 보도해 주어 좋았다. 항상 공정한 보도에 힘써 주는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27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방송이다. 이번 주 방송은 35년 동안 청국장을 만들어 온 할머니의 솜씨를 물려받기 위해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온 손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3년간 할머니에게 청국장을 열심히 배우고 홀로서기 한 손자의 모습은 감명 깊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한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가정의달 특별기획 이미자 빅쇼」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기획 이미자 빅쇼가 방송되었다. 가요무대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90분 가까운 방영시간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보기 좋았다. 또 '님은 먼 곳에', '비 내리는 삼천포', '허공' 등 주옥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미자는 1964년 '동백아가씨'를 발표해 35주 동안 가요 순위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로 오랜만에 방송에서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이른 시일 내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구석구석 대한민국 행복한 지도」

- 자세한 여행정보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여행 지도에 담아 동선을 따라 시청자들이 그대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즌1도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다시 방송되어 반가웠다. 이날은 윤인구가 30년 만에 고교 동창들과 함께 광주와 담양 두 지역의 명소를 떠났는데, 아름다운 풍경에 본인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해 주어 감사하다. <5월 22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탄생'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순간을 그 당시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의 '광장'을 집중 조명해 감회가 새로웠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확인한 '광장의 힘'과 연결해 시민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방송이었다. <6월 12일 보고서>
-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은 이관희, 오은주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아내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2년에 걸친 치열한 투병을 견디며 삶에 감사해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었다.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12월 26일 보고서>

○ 1TV 「6.25 특별 생방송 만남의 강은 흐른다」

-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을 맞아 경기도 연천역에서 방송되었다. 가족과 헤어진 지 6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만나기만을 기원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느껴지고, 상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린다니 안타까웠다. 또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역사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천상의 컬렉션」

- 별을 꿈꾸고 동경한 소년이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 설명해주었다. 뮤지컬 모자르트 중 '황금별'의 노래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해 인상 깊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별을 새긴 천문도로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과학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과 만원 지폐에 혼천의 뒤로 그려진 별자리가 천상열차분야지도라니 놀라웠다. 면면히 이어져 온 천문과학의 전통과 류방택과 관련한 탄생비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7월 4일 보고서>

○ 1TV 「취재파일 K」

-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OECD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5.8달러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15번째이다. 매년 합의가 무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시각 차이를 다루며 최저임금제의 실태를 가감 없이 방송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해주기 바란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특별기획 2부작 일본을 다시 본다」

-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메이드 인 재팬'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조명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변화를 통해 많은 교훈을 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8월 1일 보고서>

○ 1TV 「KBS 특선다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 외면하고 눈 감았던 광주의 진실을 알린 독일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취재 과정을 다룬 내용이 방송되었다.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어 매우 좋았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8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북한의 핵 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관측되면서 뉴스특보가 편성되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는 시간까지 가졌는데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보도해 주어 유익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어 좋았다. <9월 5일 보고서>

○ 1TV 「2017 KBS 대기획 UHD 순례 4부작」

- '우리는 모두 삶의 순례자들'이라는 명제 아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장기 관찰하여 그들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감동적인 코드로 풀어내는 휴먼다큐멘터리이다. 영화를 보는 듯한 감각적인 연출과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로 색다른 감동을 느껴 매우 좋았다. 특히 웅장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풍경을 초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인간에 대한 진중한 성찰을 담은 유익한 방송이었다. <9월 11일 보고서>

○ **1TV 「추석특집 대청마루」**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조 부잣집'이라 불리던 고택에 살고 있는 조한승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대청마루가 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운치 있는 시골 풍경과 할아버지의 일상을 통해 옛 추억을 느낄 수 있어 유익한 다큐멘터리였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다큐 공감」**

- 경기도 남양주 노인재활요양병원에서 92세의 나이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한원주 씨의 삶이 소개되었다. 의사로 활동하면서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외국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시청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삶의 가치와 지혜를 깨닫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방송이었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여기저기 이유 없이 쑺고 걸리는 근육통에 대해 방송되었다.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근육통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셀프 마사지를 소개해 주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사지 도구들을 이용해 통증을 잡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11월 1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함께 부르는 노래' 편으로 가수 박일남, 송대관, 설운도, 조항조, 최진희, 김혜연 등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즐겁게 시청했다. 특히 가수 최진희가 오랜만에 출연해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웠고 히트곡인 '사랑의 미로'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옛 노래를 통해 향수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을 계속 해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1TV 「성탄특집 UHD 다큐 어꾼 헤브론」**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의료 선교를 펼치고 있는 '헤브론 병원'을 취재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병원을 갈 수 없는 캄보디아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아팠다. 그들을 위해 의료 선교와 무료 진료를 하는 선교사와 의료봉사팀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2TV 「2016 KBS 연기대상」**

- 2016년 한 해 동안 KBS 드라마를 빛낸 연기자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가 방송되었다. 한 해 동안「태양의 후예」,「구르미 그린 달빛」등 재미있게 시청했던 프로그램과 그 주인공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 또 박보검, 김지원, 전현무의 유쾌하면서도 편안한 진행으로 마치 영화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2017년에도 KBS 드라마를 기대해 보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1월 3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화랑」**

- 6세기 신라를 살았던 청년들에 대해 그럴 듯한 상상을 펼치는 드라마로 화랑들의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화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 인물 및 사건들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재구성하였다니 흥미진진한 것 같다. 총 20부작으로 사전 제작되어 방송이 연장되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설 기획「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설 특집으로 스타들과 스타들의 가족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가 방송되었다. 홍서범, 조갑경 가족의 '이별의 끝은 어디 인가요'와 양희경 모자의 '넌 할 수 있어' 등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장윤정, 도경완의 '천생연분'은 장윤정의 가창력과 도경완의 랩이 더해 흥겨운 무대였다. 새해를 맞는 설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2월 1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남자 스타들의 집안일 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1이 종료되고 2월 22일부터 시즌2가 방송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출연자 교체 없이 계속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고생한 출연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9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아버지가 이상해」

- 평생을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온 성실한 아버지와 든든한 아내, 개성만점 4남매 집안에 어느 날 안하무인 아이돌 출신 배우가 얹혀살며 벌어지는 코믹하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이다. 형제끼리 싸운 후 화해하는 장면이 재미있고, 짜임새 있는 극본이 흥미진진해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된다. 드라마를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6일 보고서>

- 코믹하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라 빠짐없이 시청했다. 마지막 회에서 아버지 이윤석(김영철 분)과 어머니 나영실(김해숙 분)이 황혼 결혼식을 올리고, 이윤석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으로 해피엔딩을 맺었다. 가족 드라마답게 다양한 에피소드와 각각의 캐릭터가 지닌 매력을 잘 살려내어 보는 내내 재미있었다. 사회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어 즐겨 시청했는데 증명되어 너무 아쉽다.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일깨우며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좋은 드라마였다. <8월 29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김과장」

- 극의 긴장감과 유머를 적절하게 배합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재미있게 시청했고 각각의 캐릭터들을 잘 살린 연기자들의 호연까지 더해져 3번을 반복해서 시청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경리부장으로 나온 추남호(김원해 분)는 40대 직장인 가장으로서 공감가고 현실적인 인물로 인상 깊었고 재미와 감동을 함께 전해 주어 좋았다. 신선한 내용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빛났던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3월 31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추리의 여왕」

- 생활밀착형 추리퀸 유설옥(최강희 분)과 열혈형사 하완승(권상우 분)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풀어내면서 범죄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휴먼 추리드라마가 첫 방송되었다. 기존의 딱딱하고 전형적인 수사물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건을 풀어내 코믹하고 감성적인 면을 다루어 보는 시청자도 추리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4월 7일 보고서>

- 생활밀착형을 추리 드라마를 넘어 실용적인 극본으로 몰입도와 긴장감을 높여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마지막 회에서 유설옥(최강희 분)과 하완승(권상우 분)이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러 나서며 앞으로도 공조를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완승(권상우 분)의 전 연인 서현수(이시원 분)가 살아 돌아오며, 끝난 듯 끝나지 않은 결말로 시즌2를 암시해 주는 것 같았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며 곧 시즌2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5월 29일 보고서>

○ 2TV 「노래 싸움승부」

- 지난주부터 진행자가 연기자 현우로 변경됐다.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프로그램과 잘 어울렸으며 특히 출연자들의 무대를 즐기며 신나하는 모습은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앞으로도 무대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쌈, 마이웨이」

- 부족한 스펙으로 마이너 인생을 강요받는 것을 거부하고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첫 방송되었다. 예고방송을 보며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개성 만점 캐릭터와 통통 튀는 스토리로 즐거움과 감동을 주며 유쾌한 재미를 선사해 주는 것 같다. 특히 박서준, 김지원의 리얼한 심쿵 케미와 현실감 넘치는 연애 스토리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5월 24일 보고서>
- 남들이 뭐라던 나만의 길을 가려는 꼴통판타스틱 청춘들의 성장로맨스를 담은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최애라(김지원 분)와 고동만(박서준 분)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면서 심쿵함이 전해져 흥미진진하다. 특히 최애라(김지원 분)의 상큼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가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볼수록 재미있고 유쾌한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6월 8일 보고서>
- 남들이 뭐라하든 자신이 원하는 나만의 길을 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즐겨 시청하고 있다. 최근 고동만(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원 분)의 한층 더 견고해진 로맨스가 그려져 극의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또 이날 이들이 살았던 서산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머물렀던 황복희(진희경 분)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몰입도 높은 극본으로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볼 수 있어 좋다. <7월 5일 보고서>

○ 2TV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 이영선(이현경 분)이 윤수인(오승아 분)을 찾아가 김선우(최성재 분)의 출생 비밀을 밝히는 모습이 그려지며 더 흥미진진해졌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를 통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어 TV소설은 보는 재미가 있다. 따뜻하고 유쾌한 감동을 주는 것 같다. <6월 30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이름 없는 여자」

-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한 여자가 살리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신의 아이와, 살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악을 응징하고 복수하는 사필귀정의 드라마로 방송시간만을 기다리며 시청하고 있다. 최근 마야가 손봄임을 차차 알게 되며 서로 쫓고 쫓기는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홍지원(배종옥 분)의 악행이 하루 빨리 드러나 윤설(오지은 분), 손봄(김지안 분) 모녀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지극한 모성애 때문에 충돌하는 두 여자를 통해 여자보다 강한 두 엄마의 여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마지막 회에서 손여리(오지은 분)와 홍지원(배종옥 분)이 엄마와 딸로 재회하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어 좋았다. 매회 흘러가는 전개가 흥미진진하여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너무 아쉽다. <9월 18일 보고서>

○ 2TV 「세기의 슈퍼매치-메이웨더 VS 맥그리거」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기의 대결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 미국) 대 코너 맥그리거(29, 아일랜드) 복싱 경기가 생중계되었다. 복싱 최고의 스타 메이웨더와 UFC를 대표하는 맥그리거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어 흥미진진했다. 경기 시작 전,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는 해설자들의 알찬 설명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았다. <8월 2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학교 2017」

- 성장 드라마 '학교'의 일곱 번째 시즌으로 18세 고등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내어 즐겨 시청했다. 요즘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증명되어 아쉽다. 내년에도 '학교 2018' 드라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9월 6일 보고서>

○ 2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세계 각지의 자연환경과 음식, 문화 등을 간접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이 날은 빙하가 빛은 대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노르웨이 서부 편이 방송되었다. 만년설로 덮인 산과 경이로운 피오르, 아름다운 호수 등 청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0월 25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매일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물건들을 놓고 가는 한 남자의 사연이 방송되었다. 이상 행동을 하는 남자를 어머니가 혼자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보건소 상담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전문가를 섭외하여 출연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0월 26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주혁 추모 특집이 방송되었다. '1박 2일' 시즌 3 멤버로 합류하여 하차할 때까지의 활약했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타까웠는데 그의 생전 모습을 다시 보며 추억할 수 있도록 방송해주어 감사하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마녀의 법정」[최종회]

- 일상 속의 성범죄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다룬 법정 추리 드라마이다. 마지막 회에서 마이듬(정려원 분)과 여진옥(윤현민 분)이 절대악인 조갑수(전광렬 분)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통쾌한 복수로 끝나 매우 통쾌하였다. 스릴러와 코미디 장르를 넘나드는 섬세한 연출과 탄탄한 극본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았다. 증명되어 아쉽지만 진한 여운이 남는 좋은 작품이었다. <11월 3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저글러스」[첫 회]

- 처세술에 능한 여자와 타인의 관심을 전면 거부하는 남자가 비서와 보스로 만나 펼치는 로맨스 드라마이다. 자신의 상사인 봉상무(최대철 분)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으며 고군분투하는 좌윤이(백진희 분)가 상사의 부인에게 불륜녀로 오해를 받아 대기발령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비서들의 팍팍한 직장 생존기를 그린 촘촘한 구성과 재치 있는 전개로 재미있게 시청했다.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12월 7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저녁 시간대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이 날은 '엄마의 밥상' 코너에서 큰 딸을 위해 약밥과 돼지고기 묵은지찌름 정성껏 요리하는 이경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나주에서 의정부까지 배달된 엄마의 음식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 이날 재테크 부테크 코너에서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이 출연해 은퇴자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애청자들에게 좋은 주제로 많은 도움이 되어 좋았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17일 보고서>

○ 1R 「**KBS 라디오 특별기획 라디오 90년 미래 100년-1부 언제 어디서나 KBS 1라디오**」

- 90년 전 2월 16일에 첫 전파로 라디오가 최초 방송되었다. 이날을 기념해 90년의 우리 라디오의 역사를 짚어보고 미래 100년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평소 라디오를 즐겨 청취하는데, 여러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라디오의 지난 시간을 추억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아 매우 좋았다. 또,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KBS 라디오 90년을 축하하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2월 17일 보고서>

○ 1R 「**라디오 시사고전**」

- 3월 16일은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확대 개편하여 궁궐 내에 설치한 날이다. 이날은 현명함을 모은 곳이라는 집현전의 설립일을 맞아 모든 융성의 근본은 인재 중시와 학문 창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어 좋았다. 유익한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3월 20일 보고서>

○ 1R 「**음악이 흐르는 밤**」

- 심야에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주 청취한다. 대중적인 올드 팝송을 선곡해 주어 노년층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 좋다. 또, 박태원 아나운서의 편안한 음성 과 매끄러운 진행은 지친 삶에 활력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한다. 청취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4월 5일 보고서>

○ 1R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 우리 역사를 세계사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재해석하기 위한 신개념 역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이날은 100년 전쟁당시 프랑스를 구한 여인 잔다르크와 임진왜란 당시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목숨을 던진 조선의 논개를 통해 당시 프랑스와 조선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슷한 시기를 비교한 내용이 신선하고 궁금증을 해결해주어 흥미진진한 것 같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5월 30일 보고서>

○ 1R 「**싱싱 농수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영균 원장이 출연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산림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산림복지가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지만, 산림복지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을 전문가를 통해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또 숲체원, 치유원,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6월 21일 보고서>

○ 1R 「**생방송 일요일 아침입니다**」

- 일요일 독서실 코너에서는 김성신 출판평론가가 출연해 화제의 책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책을 소개해 준다. 추천해주는 책이 너무 재미있고 책, 저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어 매주 방송시간만을 기다리게 된다. <7월 4일 보고서>

○ 1R 「행복한 시니어」 ‘시니어 주치의’

-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한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시니어 주치의’ 코너에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4일 보고서>

○ 1R 「와이파이 초한지 ‘아듀! 와이파이 초한지-스페셜 프리 토크」

- 고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초한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디오 드라마로 즐겨 청취했던 프로그램이다. 역사 이야기를 성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로 들을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다음 작품인 삼국지도 기대하겠다. <9월 12일 보고서>

○ 1R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고구려, 후삼국, 고려에 이어 조선사를 통사로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자칫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역사를 드라마 형식으로 꾸며주어 듣는 재미가 있어 좋았다. 성우들의 연기와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10월 16일 보고서>
- 자칫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역사를 재미있게 진행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역사를 전문가의 부연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좋았다. 특히 드라마 형식으로 꾸며 성우들의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실감 나는 연기를 해주어 재미있었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4일 보고서>

○ 1R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 주말에 뉴스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인문학과 건강, 스포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어 유익했다. 특히 토요일마다 화제의 책을 소개하거나 작가를 초대하는 ‘저자 인터뷰’ 코너를 좋아한다. 앞으로도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11월 13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유열입니다」

- 대중적인 팝음악과 사연으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청취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으면 많은 감동을 받게 된다. 또, 노래 선곡 시 곡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어 팝 음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어 좋다.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바라며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1월 19일 보고서>

○ 2R 「오유경의 해피타임 4시」

- 청취자가 좋아하는 익숙한 가요와 생생한 사연으로 편안한 오후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특히 ‘4시의 쉼표’ 코너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감동적이다. 또, 오유경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변경되어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 앞으로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월 14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니다」

- 커피 한잔의 여유가 생각나는 시간대에 최수종이 27년 만에 DJ로 돌아와 반갑게 매일매일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팝송만 들려주어 아쉬웠는데, 90년대 음악과 청취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해 듣기 좋다. 또 사연을 읽으며 즉석 연기까지 펼쳐 명불허전 배우임을 입증해 주어 듣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23일 보고서>

- 출근과 등교를 끝낸 시간 잠깐의 여유가 생기는 시간대에 어울리는 음악 선곡으로 기분 좋게 청취하고 있다. 특히 요일별 코너인 '토요일에는 빨간음악'에서 들려주는 노래는 그 날의 주제와 어울리는 선곡으로 더욱 좋아한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한다. <6월 13일 보고서>
- 대중적인 팝 음악과 청취자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진행자의 경쾌한 목소리가 활력을 주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10월 25일 보고서>
- 매일 아침 대중적인 가요 음악과 청취자의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진행자의 목소리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해 주어 듣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11월 23일 보고서>

#### ○ 2R 「뮤직 플러스」

- 주말 아침을 깨우는 음악을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음악으로 위로와 행복, 희망 그 모든 것을 전해주는 듯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 팝 속에 숨은 이야기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출연해 들려주어 유익하다. <5월 22일 보고서>

#### ○ 2R 「임백천의 라디오 7080」

- 팝송과 가요가 적절히 선곡되어 지루하지 않아 자주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 임백천의 음성이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바라며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7월 6일 보고서>
- 7080 중장년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요와 팝송 중심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선곡을 통해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어 좋았다. 또, 진행자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은 듣는 재미를 더해 준다. 앞으로도 기대하며 꾸준히 청취하겠다. <8월 10일 보고서>

#### ○ 3R 「오늘의 신문」

- 시각 장애인을 비롯하여 투병 생활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및 사회 소외계층 청취자들에게 매일 아침 국내 주요 일간지 조간을 통틀어 중요한 뉴스와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정보를 낭독하는 뉴스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뉴스를 편안하고 매끄럽게 들려주어 많은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3월 13일 보고서>

#### ○ 3R 「내일은 푸른하늘」

-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상파 유일의 전문 프로그램이라 꾸준히 청취한다. 장애인복지의 현장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상세하게 다루어 좋았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7월 21일 보고서>
- 장애인복지의 현장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상세하게 다루어 즐겨 청취한다. 이 날은 화제집중 코너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개발 중인 비장애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휴즈'란 모임을 결성하여 시각장애인이 정안인처럼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이리스' 보조 기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 받았다. 본인도 시각 장애인인데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보조 기기를 개발해준다고 하니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3R 「우리는 한가족」**

-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하고 있다. 특히 '귀감영화' 코너에서 매주 영화 한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 주어 좋았다. 화면해설 작가를 통해 다양한 영화 스토리를 알게 되어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시각 장애인들이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하여 최신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한다. 이 날은 건강을 위한 식품과 음식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양파의 숨겨진 효능과 영양가 있게 먹는 법에 대해 알려주어 매우 좋았다. <9월 28일 보고서>

○ **3R 「강원래의 노래선물」 '자전거 탄 풍경의 뜨거운 라이브'**

- 7080 추억의 음악과 최신 음악까지 다양한 선곡으로 즐겨 청취하고 있다. 특히 가수 송봉주, 김형섭, 강인봉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여 다양한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하고 라이브로 들려주고 있어 좋아하는 코너이다. 이 날은 '사랑'을 주제로 게스트들이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듣는 내내 재미있고 흥이 났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해 주기 바란다. <10월 27일 보고서>

○ **3R 「낭독으로 만나는 세상」**

- 마음의 양식이 되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낭독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청취자들에게 귀로 듣는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특히 성우의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어 좋았다. 앞으로도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책을 낭독해 주기 바란다. <11월 20일 보고서>

○ **1FM 「정다운 가곡」**

-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가곡을 감상하는 가곡 전문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청취자들의 신청곡들을 들려주고 사연보다 노래에 집중한 내용으로 저녁시간에 편안하게 들으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 좋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좋은 방송해 주기 바라며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18일 보고서>

○ **1FM 「실황특집 중계방송-2017 교향악 축제(4)수원시립교향악단」**

- 연주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음악애호가들을 위해 수준 높은 국내외 연주인의 한국 연주회 현장을 찾아 생방송 중계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 1일부터 중계가 시작되었는데, 작곡가 윤전경과 전문연주가 및 평론가의 진행으로 현장을 생생히 전하고 연주회와 음악의 이해를 도와주어 좋았다. 연주회를 중계해 주어 감사하다. <4월 7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가장 따뜻한 악기,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성악곡 전문 프로그램이다. 주말에는 오페라의 배경이 된 장소로 가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페라에서 만나 본 역사와 문화를 거꾸로 돌려 오페라에 숨어있는 그 시대 이야기를 찾아내어 매우 흥미진진하고 유익하다. 또 정세진 아나운서의 편안한 진행과 멘트는 가슴깊이 남는다. <5월 17일 보고서>

○ **1FM 「새아침의 클래식」**

- 서양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청량한 고음악과 함께 산뜻한 아침을 시작하는데 선곡이 너무 좋았다. 고전과 현대 음악을 적절히 선곡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퓨전 음악을 소개하고 선인들의 풍류담을 알려 주어 즐겨 청취한다. 국악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데 최근 유행하는 퓨전 음악까지 다양하게 선곡되어 매우 듣기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선곡하여 들려주기 바란다. <8월 2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클래식과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음악 선곡이 좋아 즐겨 청취한다. 퇴근길에 진행자의 부드럽고 편안한 음성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 감성이 풍부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청취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활력을 주는 휴식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란다. <10월 26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청취자 전화 참여로 개인기도 듣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나눠주는 '금요일 코너 조건부 퀴즈'가 방송되었다. 평소에도 즐겨 듣고 있지만 게스트로 나온 박슬기의 재치 있는 입담이 박명수와 잘 어우러져 좋았다. 나쁜 오후에 즐겁게 청취할 수 있었다. <6월 19일 보고서>

- 진행자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입담이 좋아 즐겨 청취한다. 매일 알차고 다양한 코너로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 나쁜 오후에 신나는 음악 선곡과 빠른 진행으로 즐겁게 청취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진솔하고 재미있게 청취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수하길 바란다. <8월 8일 보고서>

○ **2FM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 매일 아침 팝 음악, 영화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즐거운 영어 학습을 유도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특히 팝송과 영어 회화를 접목시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기대한다. <8월 3일 보고서>

○ **2FM 「김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음악의 발견'**

- 진행자의 차분한 음성과 선곡되는 음악이 좋아 즐겨 청취하고 있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는 가수 윤준호가 주제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세세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어 좋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을 통해 청취자들의 듣는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기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2FM 「이흥기의 키스 더 라디오」**

- 진행자인 이흥기의 발랄하고 유쾌한 진행과 함께 다양한 음악을 선곡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요일별 코너를 통해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적절하게 들려주어 듣는 재미를 더해 준다. 특히 '흥키라 초대석'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듣는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기 바란다. <12월 21일 보고서>

○ **한민족R 「KBS 무대」‘살림의 명수’**

- 매주 한 편씩의 창작극을 방송하는 순수 문예 단막극이라 즐겨 청취한다. 이 날은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편견을 다룬 '살림의 명수' 내용이 방송되었다. 성우들의 실감 나는 목소리 연기 덕분에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7월 25일 보고서>

○ **한민족R 「KBS 라디오 글로벌 문화다큐 샤먼의 노래」**

- 샤머니즘의 정신과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시풍습에 담겨 있는 샤머니즘 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구촌 샤머니즘 문화까지 자세히 다루어 매우 유익했다. 샤머니즘의 문화인류학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좋은 방송이었다. <12월 29일 보고서>

○ **기타 「선택! 대한민국 2017 대선」‘대선⑤ 한눈에 보는 대선 후보 15인 면면’**

-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15명 대선 후보들의 재산과 납세 내역, 전과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대선 후보들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작성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선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4월 19일 보고서>

## | 9. 표현(소재) |

○ **1TV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벌써 대선 주자와 관련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5」**

-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풍자화가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전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뉴스를 보도하는 자료화면 그림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와 보기 불편했다.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니 향후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잊혀진 최초의 독립선언 무오 선언’**

- 2월 1일, 만주에서 민족 대표 39명이 독립을 선포한 '무오 독립선언'에 대해 보도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보도해 주어 감사했다. 그런데 배경음악이 일본 음악인 '냉정과 열정사이' OST가 나와 듣기 불편했다. 보도 내용에 따라 배경음악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우리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음악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그런데 출연한 가수들이 영어로 된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 자막이 영어로만 나와 가사를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글 자막으로도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고민상담소 내 말 좀 들어봐'

- 서로간의 갈등을 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인 '고민 상담소-내 말좀 들어봐!' 코너가 첫 방송되었다. 이날은 부부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이전에 시청자들의 사연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주는 것과 달리 부부갈등이라는 소재가 아침시간에 다루기에는 부정적으로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소재 선택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매주 수요일에는 시청자들의 이야기 경연 대회 코너로 '내 말 좀 들어봐'가 방송된다. 출연자들의 생생한 사연을 듣다 보면 1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집중해서 시청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방송 내용 중에 재혼 가정의 다소 비상식적인 사연이 소개되는 등 공감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 정규편성 첫 번째 여행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한 상하이에서 방송되었다. 아픈 역사의 기억을 공유한 상하이를 방문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고달픔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광복에 대한 꿈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보기 불편했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영상앨범 산」

- 역년의 세월을 견뎌내 거칠고도 아름다운 바위들이 사는 곳인 중국 광둥성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로 시국이 혼란한 상황에 중국 명산을 소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방송 소재 선택 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특별 생방송 타들어 가는 땅, 가뭄 해결의 방법은?」

-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의 이유와 피해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 피해상황에 대해 짚어보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가뭄의 심각성만 제시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6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최저임금 인상과 한국 경제 함수관계'

-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 각도로 전망해보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 커피 전문점 직원의 월급이 내년부터 한 달에 평균 157만원을 받게 된다면 "9급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라고 했다. 표면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자칫 최저임금 근로자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해 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수요일엔 수산물- 은빛물결출렁 여수 갈치'

-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갈치 조업과 함께 갈치 낚시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7월 한 달 간을 갈치 금어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 갈치 조업 금지하고 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공감토크 사노라면'

- 정해진 주제로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 날은 '황혼이혼, 누가 더 손해?'라는 주제로 '황혼이혼'에 대한 출연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혼 경험이 없거나 미혼인 출연자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황혼이혼을 권장하는 것처럼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8월 28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소화기 내과 교수들이 출연하여 대변 건강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전문가의 설명에 집중을 하고 시청하는데 방청객들의 호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불편했다. 방청객의 호응 소리를 줄여 방송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10월 13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아내는 바다로 출근한다'

- 방송이 시작되면서 여자 출연자가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전화 통화하며 운전하는 장면이 나왔다. 시청하는 동안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했다.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주기 바란다. <10월 19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이휘재가 셋째 계획을 밝히며 아이들과 함께 비뇨기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셋째 계획을 위한 비뇨기과 방문은 지극히 이휘재의 가정사로 보여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다. 또, 온 가족이 같이 보는 저녁 시간대에 검사결과를 말하며 정액, 정자 등 표현들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있으면 특정 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계속적으로 부각되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일반인도 따라할 수 있는 육아 정보를 제공해 주고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이범수네 가족이 이사를 해 새 집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소용이가 일일 VJ로 집안을 소개해 주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 방을 공개하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취지에 맞게 육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집 주변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차있는 지하층, 거기다 누울 자리도 없이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할머니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고, 수 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는 곳에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지내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사료에도 벌레가 많이 있었는데 구조가 시급해 보였다. 차후 강아지에 대한 후속 내용을 다루어 언급해 주시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저녁 식사 복불복으로 도르레 위에 달린 메주 밑에 앉아서 메주와 연결된 줄을 놓았다가 메주가 머리에 부딪히기 직전에 연결된 끈을 다시 잡아야 하는 방식으로 '옥떨메 후각 미션'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메주는 우리나라 대표음식인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그 재료로 게임이 진행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이러한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이날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옷벗기 강강술래' 게임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준호 팀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순신 공원에서, 김종민 팀은 서피랑 99계단에서 벗은 옷으로 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이러한 게임을 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였고, 김준호는 속옷까지 탈의해 보기 불편했다. 차후 이러한 내용은 고려해 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방송 10주년을 맞이한 '1박 2일'의 주제곡 만들기를 주제로 방송되었다. 멤버들과 뮤지션들이 함께 주제곡을 만든다니 많은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박진언이 춤을 추는 모습에 자막으로 '류머티즘 댄스'로 표기되었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2TV 설 특집「신드롬맨」**

- 스타의 일상 관찰을 통해 '우리도 그래!' 라고 고백하는 신개념 멘탈 케어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정용화의 '로그아웃 신드롬'과 솔비의 '애국 신드롬', 최민수의 '형님 신드롬' 등 스타들의 숨은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그런데 현 시국에 솔비가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방문해 인증하는 모습은 보기 불편했다. 차후 소재 선택 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2월 1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술과 안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식 여행 1탄 원 샷 투어'가 지난주에 이어 방송되었다. 그런데 여행지의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즐겨 시청하는데, 방송에서 술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차후 소재 선택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김과장」**

- 뽕땅 전문 경리과장 김성룡(남궁민 분)이 더 큰 한탕을 위해 TQ 그룹에 입사하지만 회사의 부정과 불합리에 맞서 싸우게 되고 사이다를 날리는 인물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초반에 중국 투자회사 사람들을 조민영(서정연 분)과 함께 만나는 장면에서 서울(준호 분)이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시청하기 불편했다.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방송으로 거친 언어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2TV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은 일본 삿포로와 오비히로에서 2017년 2월 19일에 개최되어 2월 26일(일)까지 경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11개 세부 종목, 총 64개 경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쇼트트랙, 피겨 등 인기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여러 종목을 중계해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대통령'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주제로 현 시국을 풍자하는 코너이다. 그런데 이날 담화 내용을 발표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대화를 하며 유민상이 "누가 본다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그냥 동원하면 됩니다. 목욕재개하고 다 같이 신청하면 달풍선 5개씩 주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부 집회를 지나치게 풍자한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이날 '1대 1' 코너에서 래퍼 킬로그램이 유치원 원장의 비리와 국정교과서를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9개 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서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해 문제가 된 것을 꼬집는 랩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유치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모든 유치원에 해당되는 문제처럼 개그의 소재로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차후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개그를 통해 웃음을 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코너가 방송되고 새로운 코너가 없어 식상한 느낌이 든다. 새로운 코너를 많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5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중국 하이난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송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시기에 적절한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아버지가 이상해」

- 코믹하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헤어진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애정전선을 이어가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차정환(류수영 분)과 변혜영(이유리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이날 두 사람이 몸싸움 후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 불편했다. 주말연속극인 만큼 이러한 장면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2TV 「정신 이슈」

- '사랑과 불륜사이 당신은 생각은?'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의 관계를 두고 사랑과 불륜 설전이 벌어졌다. 서로 다른 입장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를 예로 들어 방송이 진행되는 건 두 사람의 불륜을 정당화 시키고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주제 선정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2」

- 언니쓰가 부산으로 여행가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부산에서 멤버들이 자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장면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방문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데 고기 불판 구멍에 얼굴을 넣는 장면이 나왔다. 이는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기 불편했다. <5월 8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 출연자 중 백일섭이 결혼한 지 40년 만에 졸혼의 이유를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졸혼은 '결혼을 졸업하다'라는 신조어로 최근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데, 방송인이 졸혼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되어 졸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신개념을 강조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속보이는TV 인사이드」

- 대선 시즌만 되면 핫하게 부상하는 유명 인사 공중부양의 아이콘 허경영을 주제로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걸로 봤을 때 알 수 없는 마음속 심리를 추적해 보는 것은 좋지만,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방송하고 이를 미화하는 것처럼 느껴져 아쉬웠다. <5월 15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새 앨범 '하이퍼리듬:레드'를 발매한 솔비가 컴백 무대로 음악을 온 몸으로 표현하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 페인팅을 선보였다. 그런데 온 몸에 페인트를 묻히고 전위 예술을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무대가 보기 불편했다. <5월 30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당신만 몰랐던 노하우 코너'에서는 무좀 증상 완화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여름 불청객인 무좀은 가려움증이 심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유익한 정보인 것 같다. 그런데 방송시간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저녁시간으로 보기 불편했다. 차후 이러한 소재는 식사시간을 피해 방송해 주기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강승화의 연예수첩'

- '강승화의 연예수첩' 코너에서 아이돌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되었다. 자료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특정 아이돌 그룹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화면은 주의해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황금빛 내 인생」

- '흙수저'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가 가짜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이 날은 산속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서지안(신혜선 분)의 모습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자극적인 내용은 방송에서 자제해 주기 바란다. <11월 1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미스터Lee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 새총 달인을 만나 새총으로 물건을 맞추는 실험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따라 할 것 같아 위험해 보였다. 모방할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이러한 실험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영양은 높이고 염분은 낮추는 건강한 국물요리 비결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 접시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기 불편했다. 조리한 음식의 맛을 표현하기 위함이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비위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12월 14일 보고서>

○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 매주 금요일에는 '생생 단톡방' 코너로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원장과 홍소연 아나운서가 패널로 나온다. 이날은 '지갑에 얽힌 추억과 사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듣기 불편했다. 유익한 내용을 다루어 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2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니다」

- 유열이 진행할 때부터 올드 팝송을 들을 수 있어 즐겨 듣던 방송이다. 최근 진행자가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 청취하고 있는데 선곡이 가요 위주라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올드 팝송도 들을 수 있도록 선곡시 반영해 주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2R 「박명수의 라디오쇼」

- 가요 위주의 선곡과 진행자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날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되었는데 선곡된 음악이 진행자의 히트곡으로 편중되어 무척 아쉬웠다. 앞으로는 다양한 가수의 음악을 통해 청취자의 듣는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기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2FM 「정재형 문희준의 즐거운 생활」

- 이날 '그거 뭐지?'라는 코너에서 질문은 '비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이었다. 그런데 진행자 정재형이 청취자 사연 중 '전 여친'이라는 사연을 읽었는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2FM 「이수지의 가요광장」

- 20~40대 청취자 타겟의 친숙한 스테디셀러 가요부터 최신곡까지 아우르는 가요 쇼 프로그램이다. 특히 DJ 이수지 특유의 발랄함과 친근한 매력이 듣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그런데 선곡이 다양하지 않아 지루한 느낌이 든다.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선곡해 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25일 보고서>

○ 기타 「KBS 뉴스」

- 현역 군인 30명이 부대 안팎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가져 장준규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균형법 제92조 6항 추행 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KBS 뉴스 SNS에서 확인했는데, KBS 관계자가 '포르노 영화 찍냐'라는 답글을 달아 당황스러웠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 | 10. 간접광고 |

○ 1TV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낭만제주 자연음악회'

-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재 10주년을 맞아 서귀포 성산읍 성산일출봉 광장에서 '낭만제주 자연음악회'가 생중계되었다. 그런데 양방언 밴드가 출연하여 연주하는 동안 피아노에 제조회사 브랜드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편집을 거쳐 방송해 주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 2TV 「남편 갱생 프로젝트 가두리[최종회]」

- 탤런트 이재룡이 배우 윤다훈, 최태철과 가수 조정치가 묵고 있는 숙소를 방문하여 계곡으로 물놀이 가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계곡에 도착한 네 사람에게 옆에 있던 주민들이 계곡물에 담가둔 맥주를 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상표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기 불편했다. <9월 28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호주 브리즈번으로 여행을 떠난 가수 효연과 써니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악어 구이와 켈거루 스테이크를 맛보는 과정에서 맥주 상표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기 불편했다.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는 만큼 상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이 날은 작곡가 윤일상 특집으로 가수 예일리, 휘성, 군조, 워너원 김재환, DK, 손승연, 다비치가 출연하였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출연자들이 앉은 테이블에 음료수 상표명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상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11월 21일 보고서>

## | 11. 언어 |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5가지 장수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차트를 통해 5가지 비결을 설명해 주는데 한상권 아나운서가 차트에 있는 000을 '땡땡땡'으로 말했는데, 이는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말인 '무엇무엇' 정도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 1TV 「특집 생방송 블루라이팅 페스티벌」

- 유니세프를 상징하는 컬러 '블루'를 컨셉으로 한 '블루라이팅 페스티벌'은 전 세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푸른빛을 밝혀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특집 생방송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을 보며 제목을 우리말로 표현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후 방송 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 1TV 「나눔 경영쇼 사장님이 멋졌어요」

- 나눔의 경영으로 성과공유의 철학을 가진 기업인과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방송이지만 제목의 '멋졌어요'는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차후 제목 선정 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라인」

-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24시간 내내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고충에 대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뉴스 제목과 보도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카톡'이라는 특정 메시지를 언급해 듣기 불편했다. 차후에는 정확한 용어인 모바일 메신저라고 칭해 주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강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유익했다. 그런데 이들을 '스트레스 어벤져스'로 불렀는데, 어떤 뜻으로 표현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양한 연령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청주충국]」

- 제20회를 맞는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가 열려 행사장에 모인 다양한 반려동물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리포터가 반려동물 주인에게 "그런데 요 친구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라고 질문했는데, 아들, 딸은 사람에게 태어난 자식을 일컫는 말로 동물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동물에게 맞는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5월 18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9」

-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 인수위원회가 5월 24일부터 100일 간 진행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온라인과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고, 마지막 날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도 개최된다고 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며 '타운홀 미팅'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양한 연령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26일 보고서>

○ 1TV 「UHD 한국의 유산 헤리티지 투모로우」

- 민족의 현재를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화유산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줄 것인지를 다루었다.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은데, 방송제목을 '헤리티지 투모로우'라는 표현보다 우리말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6월 23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서는 프로그램 취지가 좋아 즐겨 시청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시된 첫소리의 낱말을 맞히는 문제 출제에서 '온고지신' '천정부지' '풍비박산' 등 고사성어와 사자성어가 나와 보기 불편했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본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7월 6일 보고서>

○ 2TV 「글로벌24」

- 141년 전통의 미국 웨스트민스터 도그쇼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는데, 정작 개는 없고 견주들만 대회장을 누비며 종종 걸음을 걸거나 뛰어다니는 기괴하면서도 황당한 이벤트가 열려 이와 관련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이를 "개가 빠진 도그 쇼라니...양꼬 없는 찐빵 아닌가요?"라고 표현해 듣기 불편했다. '양꼬'는 일본어로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시청자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이날 '나를 베이비라 부르며 아기 취급하는 친형!'이란 사연으로 출연자 엉덩이를 만지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출연자 고민에 대해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 모습에 자막이 '말잇못'으로 표기되었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줄임말 사용을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 다이어트가 시급한 74세 백일섭 생애 첫 도전으로 샐러드 한 끼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데 맛이 없음을 표현하며 자막에 '영혼 없는 되새김질'이라고 표기되었는데, 되새김질은 동물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지난주에 이어 1번 국도 따라 떠나는 '해장국 로드'가 방송되었다. 전국 맛집을 찾아 미션 후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방송 중에 '답정너', '존잘러' 등 신조어 사용이 자주 나와 보기 불편했다. 본인과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니 신조어 사용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현장 스토리 K 코너에서 옥상 야외 테라스에서 주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일명 '루프톱 바'과 관련해 야외영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루프톱 바'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발음이 어려운 외국어 표현은 되도록 우리말로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25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홍석천과 윤박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떠났다. 태국만 40번째라는 푸켓 마스터 홍석천의 여행 일정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사전 인터뷰에서 홍석천이 윤박에게 “애는 그냥... 동네 양아치야!”라고 말하고 자막으로도 표기되었는데, 양이라는 글씨는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속된 표현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6월 21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게릴라 데이트’ 코너에 가수 지코가 출연하였다. 그런데 리포터가 저작권 수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음원 깡패’, ‘저작권 재벌’이란 자막 표기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매주 새로운 개그를 통해 웃음을 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올초 민박 코너에서 미성년자인 아역 배우 이효린이 고정으로 출연하는데 ‘호구’라는 언어를 표현하여 보기 불편했다.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방송으로 되도록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2월 5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 창업 트렌드 코너에서 매경이코노미 기자와 함께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했다. 그런데 트렌드는 외래어로 유행이라는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하여 듣기 불편했다. KBS에서 우리말로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R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최근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방송되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사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던 과정에 “이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빨’은 ‘이’를 낫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듣기 불편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7월 24일 보고서>

## | 12.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

○ 1TV 「열린음악회」

- 정릉 서경대에서 약 1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다. 녹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소음이 심해 서경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으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야외 녹화시 마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녹화를 진행해주기 바란다. <9월 4일 보고서>

## | 13. 장애인·차별 |

○ 1TV 「KBS 뉴스」

- 농아인은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뉴스가 적고 수어통역 제공 뉴스라도 화면크기가 작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어는 손의 위치, 방향, 그리고 작은 손 모양과 표정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통역 화면에서는 수어를 10년 이상 해온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어 통역은 농아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어 통역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늘려주고 수어 통역 화면크기를 크게 해주기 바란다. <6월 28일 보고서>

## | 14. 일기예보 |

### ○ 1TV 「KBS 뉴스광장」

-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강아랑 캐스터와 연결해 날씨를 알아보았다. 밤새 눈이 와서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예보해 주었는데,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큰 재난이 아닌 경우 실내에서 자료화면을 통해 보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보도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라인」

- 뉴스 말미에 기상정보를 알려주는데 한주간의 기상예보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 본인은 늦은 시간에 퇴근해 다른 뉴스를 볼 수 없어 「KBS 뉴스라인」을 꼭 챙겨보는데, 한주간의 날씨도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26일 보고서>

### ○ 1R 「58분 날씨」

- 58분에 생활과 기상정보를 결합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유지될 때 자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4월 24일 보고서>

## | 15. 방송품질 |

### ○ 1TV 「가요무대」

- 흘러간 노래를 듣고 향수와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무대 세트와 진행자 뒤의 배경이 어둡고 단조롭다는 느낌이 든다. 시청자들에게 청각적인 즐거움만이 아닌 시각적인 감성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세트와 배경 변경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7월 14일 보고서>
-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자 뒤의 배경이 어둡고 흐릿하여 답답한 느낌이 들고 보기 불편하다. 추후에는 선명하고 깨끗한 배경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10월 18일 보고서>

###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적 사건이나 배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자와 패널이 원형 테이블 주변에 앉아서 진행하는데 출연자들의 겹치는 동선으로 인하여 시청하기 답답할 때가 있다. 출연자가 등지고 앉아 있거나 뒤통수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당혹스럽고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다. 차후에는 출연자의 동선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7」 (경인)」

- 뉴스를 시청하던 중 끝까지 보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방송이 나왔다. 별도의 양해 멘트도 없이 방송이 종료돼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라며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일기예보를 보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알려주는데, 배경음악이 함께 나와 일기예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배경음악 없이 방송을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2일 보고서>

○ 2TV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롯데 vs NC」

- 2017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NC 대 롯데의 경기가 경남 마산구장에서 열려 중계방송되었다. 그런데 투수가 타자에게 공 던질 때,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찍는 것처럼 높아서 공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불편하다. 시청자가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각도로 중계해 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1R 「스포츠 스포츠」

- 2018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예선 카타르와의 경기가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해 경기 진행 상황을 전해 주어 좋았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해도 잡음이 너무 심해 기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점을 주의해 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1R 「KBS 공감토론」

- 7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헌 특집 토론 '개헌을 생각한다' 주제로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방송 내용을 청취하던 중 패널이 발언하는 과정에 잡음이 들리면서 방송이 잠시 중단되었다. 잡음이 들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14일 보고서>

## | 15. 시청자 참여 |

○ 1TV 「KBS 신년기획 2017 대한민국 길을 묻다」

- 100분 동안 여야의원 6명과 함께 우리사회의 미래를 모색해 보았다.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내용도 방송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시청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감정을 원하는 의뢰품이 있는 경우 사진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면 1달 후 전화로 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 의뢰했다. 그런데 한 달 이후 기재된 제작진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연결되지 않아 처리결과를 알 수 없어 불만스럽다. 무료로 감정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감정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청신청 후 어렵게 당첨되었다. 그런데 당첨 문자와는 달리 예비 좌석표를 받아 지정 좌석 배정이 어렵다고 해 당황스러웠다. 이 프로그램은 주 시청대가 나이가 있는 고령층인 만큼 지정 좌석제로 변경되면 좋을 것 같다. 차후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2017 규제개혁 토론회」

- 정부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중소기업인과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고충과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현장 질의응답 외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매주 금요일 방송되는 '공감토크 사노라면' 코너에서는 정해진 주제로 출연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시청자 의견은 티벳을 통해서만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여 아쉽다. 본인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ARS 참여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7월 17일 보고서>

○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 전·현직 아이돌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대표 유닛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했다. 그런데 방청 당일 현장에서 입장하는 과정에 핸드폰을 수거한다는 공지를 들었다. '핸드폰 제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는 말에 당황스러웠다. 추후에는 사전에 미리 공지해 방청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10월 13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시청자 퀴즈 및 의견을 문자로 받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런데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든다. Kong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비용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청취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방송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 16. 홈페이지 |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당뇨병과 암이라는 두 가지 위험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운동법이 나와 다시 보기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저작권으로 중단되었다고 하여 당황스러웠다. 방송에서 보는 것으로는 운동법을 배울 수 없으니 운동 방법에 대해서 따로 홈페이지에 공지해 주기 바란다. <6월 19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어디서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남자들의 주부생활 밀착토크 프로그램으로 스타 살림남의 리얼 살림기를 다루었다. 살림하다 보니 터득하게 된 남자들의 알짜 정보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다. 그런데 홈페이지 '출연자 소개'에 손태영은 없어 아쉽다. 홈페이지에 손태영에 대한 소개도 추가해 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유희열의 재치 있는 입담과 수준 높은 음악으로 뮤지션을 초대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브 뮤직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방송을 보며 직접 방청해 보고 싶어 방청신청을 했는데, 만 18세 이하의 입장할 수 없다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정확히 입장 제한에 대해 출생년도로 표기해 주면 편리할 것 같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 표기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천만주부의 일급비밀 코너에서 올바른 겨울 이불 관리법 및 목은 때 잡는 만능물티슈 등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방송을 보며 놓친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유용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다양한 정보와 화제를 제공해 주어 업체 연락처를 홈페이지에서 자주 확인한다. 그런데 5월 26일부터 이선영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교체되었는데 KBS 홈페이지에 정다운 아나운서 사진이 계속 나와 있어 보기 불편하다. 진행자가 교체된 경우 홈페이지를 변경해 주기 바란다. <6월 26일 보고서>

○ 2FM 「황정민의 FM대행진」

- 출근길 청취자를 대상으로 상쾌한 음악과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고 활기찬 하루를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빠짐 없이 청취한다. 특히 선곡되는 노래들이 좋아 홈페이지 선곡표를 참고해 다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선곡표가 방송직후 바로 올라오지 않아 불편하다. 방송이 끝난 후 신속하게 선곡표를 올려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예술가곡, 민요, 오페라,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본인은 방송 전에 그날 들려줄 음악을 선곡표를 통해 확인하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되도록 기다리는 청취자들을 위해 선곡표를 방송 전 정해진 시간에 올려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 17. KBS 애플리케이션 |

○ My K

- My K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TV를 자주 시청한다. 이날은 월화드라마「화랑」을 시청하기 위해 My K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TV를 이용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송출되어 당황스러웠다. 오류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티벳 애플리케이션

-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티벳 앱을 통해 시청자 투표에 참여하거나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티벳 앱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줬으면 한다. KBS 2TV의 새 캐릭터 '케빗'처럼 다양한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시청자와 제작진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7월 7일 보고서>

## | 18. 프로그램 구매 |

○ 1TV 「구석구석 대한민국 행복한 지도」

- 자연이 만든 풍경과 사람이 만든 문화를 만나는 기행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각 지역의 유익한 여행 정보를 전달해 주어 좋았는데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 발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11월 30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저녁 시간대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미스터Lee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코너는 PD가 세계의 진기한 풍경사진의 촬영지를 찾아내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주는데 보는 재미가 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맛 집을 찾아가 고수들의 숨겨진 손맛을 소개하는 '황금레시피' 코너와 같이 책으로 발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3월 8일 보고서>

| 19. 보도 제언 |

○ 1TV 「KBS 뉴스 12」

- 최저 임금이 인상되자 상당수 아파트가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거나, 핏수를 써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추가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딱히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또, 실업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환경 및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지난해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 보인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보복운전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양보하고 조심해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최근 최순실 사태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 것 같다. 국내외로 불황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와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 많은 궁금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라는 한 개의 위협에만 대응해 주변국들과 공조를 펼쳤는데, 현재는 중국, 일본, 미국 등 4각 파도에 직면해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지 해법을 모색해 보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자료화면에 각 국가가 표시되고 기사는 바닥에 우리나라 지도 위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설명해 주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밟고 뉴스가 진행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보도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수년 간 폭력 등 갖은 방법으로 보육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판에 손을 지지거나 토사물을 먹인 아동학대를 한 혐의이다. 피해 아동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피해 사례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기존 전기제품이나 유아용품에서 일반 생활용품 섬유까지 KC 인증영역이 확대되어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KC 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란다. <2월 1일 보고서>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 그런데 평소에 재활용 가능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와 관련해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8을 공개해 이와 관련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7 발화 파문 후 배터리 안전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 보도되는 점은 좋지만, 휴대전화를 광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보기 불편했다. <4월 3일 보고서>
- 최근 거리에 전동휠을 비롯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전동기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인도 또는 차량 사이에서 위험하게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법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단속대상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5월 12일 보고서>
- 최근 몇 년 사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황사, 미세먼지로 나빠진 대기의 질이 피부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을 자세히 보도해 주기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최근 특정 회사인 릴리안에서 제조한 여성용품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검사에 나섰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생리불순, 생리통 등 부작용이 심해졌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자녀도 해당 제품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어 우려가 되고 혼란스럽다. 해당 제품 피해 사례와 안정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주기 바란다. <8월 22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5」

-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수뇌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기자와 연결했다. 그런데 기자가 브리핑을 하는 도중 다른 방송사 기자가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 이중으로 들려 보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차후 이러한 점은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7」

- 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곧바로 형량을 늘리는 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다.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형량이 늘어난 다른 사례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다루어 심층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신년 기자회견」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신년인사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 중계방송이 끝나 아쉬웠다. 향후에는 끝까지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 1TV 「KBS 뉴스」

-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기예보는 더욱 더 챙겨보게 된다. 최근 들어 장마가 시작된 지역 위주로만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뭄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가뭄 피해 현황과 함께 여러 지역을 같이 보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차후 보도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 <7월 7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한해 2백여 명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로도 입양된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제도와 문화 소개를 제외하고 해법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아쉬웠다. 차후에는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보도 요청

- 해마다 홍수와 하수 범람으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그런데 홍수 주범 원인 중 하나로 배수구 내부에 쓰레기와 토사가 꽉 막혀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수관 교체나 배수구 청소 등 관리가 미흡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배수관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마철 수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청자본부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28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청구·철회 등)	계
11	7	6	4	28

※ 2017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3일	윤**	000 이사 연락처	비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2	1월 4일	류**	이사회 회의록 등	부분공개	비공개 회의 부분
3	1월 5일	김**	KBS뉴스9 청각장애인용 방송자막	공개	
4	1월 10일	강**	신용카드범죄관련 뉴스보도기사	비공개	뉴스 가등 홈페이지 기사 검색
5	1월 13일	장**	해외공연자료	부분공개	계약 당사자간 비밀 준수 조항
6	1월 19일	송**	제작비지급규정	비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7	3월 23일	박**	M/W 장비 성능시험 심사 자료	부분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7호
8	3월 24일	김**	TV 수신료 징수 인원, 금액	공개	
9	3월 27일	이**	TV 수상기 등록 기록 등	비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불일치
10	3월 24일	김**	임직원 인사 이력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4월 12일	류**	시청자위원회 운영예산 집행내역 등	공개	
12	5월 23일	손**	언론중재위 처리 현황	공개	
13	8월 22일	정**	별관부지 개발 계획	공개	
14	9월 8일	조**	이사별 차량 지원 현황	공개	
15	9월 8일	조**	이사별 업무 추진비	공개	
16	9월 15일	김**	세월호 CCTV 원본 영상	공개	
17	9월 19일	조**	이사회 회의록 등	부분공개	비공개 회의 부분
18	9월 19일	조**	국가기록물 생산현황	공개	
19	10월12일	송**	월드컵 축구 관련 원본 영상	비공개	저작권 없음
20	11월 8일	조**	TV 수신료 납부내역 공개	취하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11월 9일	서**	기사제보자 신상공개 요구		취하
22	11월 15일	이**	기사제보자 신상공개 요구		취하
23	11월 15일	곽**	기사제보자 신상공개 요구		취하
24	11월 29일	하**	안테나 방송장비 내역 및 규격	공개	
25	11월 29일	김**	한국인의 고독사 프로그램 취재 내용 중 경기도 현황 자료	부분공개	존재하는 현황 자료만 공개
26	12월 5일	김**	기사 제보자 신상 공개 요구	비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9조 1항 3호, 6호, 7호
27	12월 20일	최**	KBS의 2017 전략목표, 중장기사 업계획, 비전 등	부분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28	12월 20일	윤**	KBS의 2017 전략목표, 중장기사 업계획, 비전 등	부분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 시청자 권익보호

##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 6

#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sup>2)</sup>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 2010년 6월 11일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은 시청자본부장이다.

2017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58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58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7	0	0	7
2		0	0	0	0
3		0	0	1(방통위)+1(인권위)	2
4		0	0	5(방통위)	5
5		0	0	9(방통위)+1(인권위)	10
6		1	0	3(방통위)	4
7		0	0	1(방통위)+2(인권위)	3
8		2	0	1(방통위)	3
9		2	1	3(방통위)	6
10		0	0	9(방통위)	9
11		1	0	4(방통위)	5
12		1	0	2(방통위)+1(인권위)	4
계		14	1	38(방통위)+5(인권위)	58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37건)			비제작부문(21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17	6	14	6	11	4	58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6	10%
보도 취재요청	3	5%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9	16%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1	2%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2	3%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2	3%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19	33%
난시청, 난청	8	14%
경영(직원, 시설)	8	14%
수신료	0	0%
계	58	100.0%

# 7

##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국이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sup>3)</sup>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sup>4)</sup>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국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sup>5)</sup>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방송 제언</p> <p>-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벌써 대선 주자와 관련해 방송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방송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2</p> <p>- 방송에서 언급되었지만, 탄핵에 상관없이 2017년에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정책, 비전,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투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시의적절한 방송이라 생각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 9(경인)] ] 보도 제언</p> <p>-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해 오던 경기도 성남의 한 노인복지주택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관리권을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보기 불편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양쪽 입장을 모두 보도해 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경인방송센터</p> <p>- 반대쪽 대표자인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과 이미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서 향후 후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b>□ 1TV [KBS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제언</b></p> <p>- KBS 가 대선후보 토론 일정을 19 일로 확정 짓고 각 당에 후보 출연을 요청했는데, 정의 당 심상정 후보만 제외되었다고 들었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의거해 토론 일정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는데, 소수 정당이 토론에서 배제되어 아쉽다. 소수 정당 후보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선거방송기획단</b></p> <p>- 언론사 공직선거법 82 조에 대통령 대선후보 초청은 kbs 선거방송준칙 원내 10 석 이상, 평균 10% 이상 지지율 등에 의거해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p>
	<p><b>□ 1TV [KBS 뉴스] 방송 제언</b></p> <p>- '새로 나온 책' 코너에서는 한 주간 새로 나온 책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어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4 월 10 일 이후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TV 편성 특성상 상세한 책 소개가 어려워 코너가 삭제되고 디지털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송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p>	<p><b>□ 담당부서 : 통합뉴스룸 문화부</b></p> <p>- TV 편성 특성상 상세한 책 소개가 어려워 TV에서는 &lt;새로 나온 책&gt; 코너가 삭제가 되었고 대신에 디지털뉴스에서 멀티미디어에 &lt;새로 나온 책&gt; 코너를 운영, 매주 금요일 오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b>□ 1TV [KBS 뉴스 9] 보도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 각도로 전망해보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 커피 전문점 직원의 월급이 내년부터 한 달에 평균 157 만원을 받게 된다며 "9 급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라고 했다. 표면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자칫 최저임금 근로자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1TV 경제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방송 매체이다 보니, 최저 시급자와 공무원의 일자리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데이터의 근거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꼭 이런 부분도 고려해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p><b>□ 1TV [KBS 뉴스 (경인)]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를 시청하던 중 끝까지 보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방송이 나왔다. 별도의 양해 멘트도 없이 방송이 종료돼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라며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보도기술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뉴스 7 (경인) 로컬방송 제작을 마치고 본사 KBS 뉴스 7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하나 이미 본사 뉴스로 전환되어 기술적으로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방송 진행에 대해 사과드리며 향후 생방송 제작 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b>□ 1TV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편성 첫 번째 여행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한 상하이에서 방송되었다. 아픈 역사의 기억을 공유한 상하이를 방문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고달픔과 그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광복에 대한 꿈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보기 불편했다.</li> </ul>	<p><b>□ 담당부서 : 프로덕션 3 시사데스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일절과 4.13 일 임시정부 수립 사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방송으로 사드랑 연관 짓는 건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사드와는 상관없이 공영방송의 책무로 방송을 기획했습니다.</li> </ul>
	<p><b>□ 1TV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출연자 발언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난의 길 임시정부루트를 주제로 '1부 폭탄을 든 그들'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윤봉길 의거의 배후로 김구 선생이 직접 나선 일 이야기 하며 이윤석과 최태성이 선생이라는 호칭 없이 계속 "김구가.."라고 말해 듣기 불편했다. 호칭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프로덕션 3 시사데스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인 매체인 언론이나 방송에서 역사인물에 존칭이나 호칭을 안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b>□ 1TV [우리말 겨루기]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서는 프로그램 취지가 좋아 즐겨 시청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시된 첫소리의 낱말을 맞히는 문제 출제에서 '온고지신' '천정부지' '풍비박산' 등 고사성어와 사자성어가 나와 보기 불편했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본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li> </ul> <p><b>□ 1TV [6시 내고향]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갈치 조업과 함께 갈치 낚시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7월 한 달 간을 갈치 금어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 갈치 조업 금지하고 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li> </ul>	<p><b>□ 담당부서 : 1TV 제작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겨루기는 국립국어원의 &lt;표준국어대사전&gt;을 기반으로 표준어를 출제하고 있으며, 문제 유형은 순우리말(고유어), 한자어, 속담, 관용구, 순화어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입니다. 한국인의 표준어 상당부분이 한자어이고 한자어를 한글로 쓸 때 흔히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출제한 '풍비박산'을 '풍지박산'으로, '천정부지'를 '청전부지'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 한자어 표준어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출제했습니다.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과 한자어는 대립되는 문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상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말 겨루기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고유어)이나 쉬운 말로 순화해 쓰기를 권장하는 순화어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다수의 순우리말(고유어) 문제도 같이 출제합니다. 한국인의 표준어를 출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한자어 출제 또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말 겨루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li> </ul>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갈치 금어기는 7월 한달간이며 해당 기간 중 갈치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0% 미만인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금어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촬영한 어업은 근해채낚기 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어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입니다. 또 일반 낚시객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형 어선이 아닌 생계형 어선입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b>□ 2TV [살림하는 남자들]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날은 유키스의 일라이가 출연해 천연 세제 만들기, 화장실 청소 등 살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다른 출연자와는 달리 일라이는 계속적으로 부부가 함께해서 보기 불편했다. 물론 해외 활동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의 본 취지에 맞춰 다른 출연자들과 동일하게 남자들의 살림하는 모습만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li> </ul> <p><b>□ 2TV [배틀 트립]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과 안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식 여행 1탄 원 샷 투어'가 지난주에 이어 방송되었다. 그런데 여행지의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즐겨 시청하는데, 방송에서 술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차후 소재 선택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희 프로그램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t;살림하는 남자들&gt;은 시작 단계부터 연예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진솔하게 살림하는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살림"이란 독거가 아닌 이상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간 살림 남들의 좌충우돌 살림이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림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라이의 경우 가족이 함께 출연함으로써 인해, 해외 일정으로 살림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남편으로서의 미안함과 아빠로서의 애잔함이 더 극대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살림을 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제작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 가정들도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으로, 그 경우 일라이의 이질감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li> </ul>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맛을 표현하고 설명을 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15세 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음주장면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의미로 방송을 제작했습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b>□ 2TV [개그 콘서트] 방송 제언</b></p> <p>- 이날 '1 대 1' 코너에서 래퍼 킬로그램이 유치원 원장의 비리와 국정교과서를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9개 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서 운영비를 싹짓듯 처럼 유용해 문제가 된 것을 꼬집는 랩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유치원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모든 유치원에 해당되는 문제처럼 개그의 소재로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차후 소재 선택 시 참고해 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TV프로덕션 6</b></p> <p>- 언론 보도에 베이스하여 최대한 그 내용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특정 원장을 지칭하려는 의도였으며, 사건과 무관한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한테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p>
	<p><b>□ 2TV [해피 선데이] 방송 제언</b></p> <p>- 이범수네 가족이 이사를 해 새 집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소울이가 일일 VJ로 집안을 소개해 주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 방을 공개하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느껴져 보기 불편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취지에 맞게 육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p>	<p><b>□ 담당부서 : TV프로덕션 9</b></p> <p>- 가급적이면 이러한 내용은 다루고 싶지 않으나 이사를 해서 집을 소개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주 집이 소개되는 부분은 아니니 앞으로는 조심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input type="checkbox"/> 2TV [해피 선데이] 방송 제언</p> <p>-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청산도로 떠난 '제 1회 단합대회'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장점 릴레이부터 댄스경연까지 유쾌한 시간들을 가지며 멤버들이 단합대회를 펼치고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멤버들이 연두색 단체옷을 입고 나와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 보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TV프로덕션 9</p> <p>- 국민의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청산도와 봄을 상징하는 색이라 생각하여 연두색을 선택하였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광고 제언</p> <p>- 작곡가 윤일상 특집으로 가수 에일리, 휘성, 군조, 워너원 김재환, DK, 손승연, 다비치가 출연하였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출연자들이 앉은 테이블에 음료수 상표명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상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심의실</p> <p>- 해당 상품은 광동제약과의 간접광고 약정에 의해 상표명이 노출된 것입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b>□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연자 발언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수요일 '매거진 플러스!' 코너에서는 정 부희 고려대 한국곤충연구원과 함께 곤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우리 몸속에 사는 기생충과 해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출연자가 곤충과 기생충을 가리켜 '애네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애네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출연자 발언에 주의 를 주기 바란다.</li> </ul> <p><b>□ 2FM [정재형 문희준의 즐거운 생활] 방 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날 '그거 뭐지?'라는 코너에서 질문은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이었다. 그런데 진행자 정재형이 청취자 사연 중 '전 여친'이라는 사연을 읽었는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R 프로덕션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을 가족처럼 연구하는 분이라 일상적인 표 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강의도 많이 하는 분이라 친근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의견은 전 달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p><b>□ 담당부서 : R 프로덕션 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에도 오답 소개 중 "비오는 날 생각나는 것 중 청취자의 사연 중에 여자친구가 많이 생각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정재형이 그 사연을 읽은 것인데 결코 음식과 연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생방송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더 주의 를 하겠습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b>□ 1R [생생 라디오 매거진] 방송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닝에서 진행자가 퀴즈 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수박'이었다. 그런데 수박을 과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채소가 맞다. 초등 교과서에도 수박은 채소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R 프로덕션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적인 분류에 따르면 수박은 채소가 맞지만, 생활 속 소재를 다루는 퀴즈의 기획의도에 따라 청취자들이 친근하게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관행적인 일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방송임에도 방송 진행의 흐름상 일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취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lt;생생 라디오 매거진&gt;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식물이야기" 코너에서 국립 수목원 소속 식물 전문가를 모시고 과일과 채소의 차이와 정확한 구별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li> </ul>
기 타	<p><b>□ 기타 [지역방송 제언] 방송품질 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방송은 HD로 방송되는데, 일부 지역자체방송 시 SD로 방송되어 많이 불편하다. 특히 9시 로컬 뉴스를 시청할 때 80년대 방송을 보는 것처럼 화질이 너무 좋지 않다. 본인이 거주하는 전남 순천 지역에서도 HD 방송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li> </ul>	<p><b>□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D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선사업 추진 예정입니다.</li> </ul>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기 타	<p>□ 비채널 [KBS 뉴스] 트위터 제언</p> <p>- 공영방송의 공식 트위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와 관련 내용으로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런데 해시태그가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단어들로 느껴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내용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통합뉴스룸 디지털부</p> <p>- SNS 에서 해시태그는 객관적인 사실(팩트)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문장을 구사하는 영역으로 해당 기사에서 "#국민의당_대표와_서울시장_모두 다_할거야"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또 편파적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미인데 해당 기사와 멘션은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KBS 디지털뉴스는 트위터 게시 당일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내부 논의 끝에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언론사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 1 명의 요구에 따라 기사 내용이나 게시물의 해시태그 내용을 바꿔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도 많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앞으로 시청자(디지털뉴스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게시물을 작성하겠습니다.</p>

## 8

#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 1

### KBS 방송강령

#### [ 전문 ]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 [ 총 강 ]

###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 [ 방송 강령 ]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국,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삭제 2008. 8. 1>

[ 별표2 ] <삭제 2008. 8. 1>

[ 별표3 ]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월	신일	월일	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문서번호 : 시청자서비스팀 - 179호 (2009. 1. 28.)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b>고충처리신청서</b>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피해사실	6 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b>KBS 고충처리인 귀하</b>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시청자본부장
  - 위원: 감사실장, 편성마케팅국장, 방송주간, TV 프로덕션 1 담당, 네트워크시설국장, 법무실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 됨.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견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    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